

고객이 행복해하는 물류- 옐로우캡이 만들어갑니다.

고객 모두가 만족해 하는 최고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Only One의 Logistics Company 서비스

2000년 10월 물류사업에 진출한 이래 국내 택배 업계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표적인 택배 회사로 성장해 온 저희 (주)옐로우캡은
전문화된 인력 확보와 기술확충, 핵심부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물류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꼭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Only One의 Logistics Company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택배는 물론
이사, 쇼핑물, 물류창고 보관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종합물류 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나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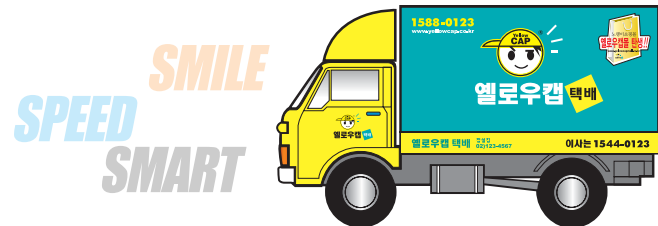
고객 모두가 행복해 하는 물류 - 옐로우캡이 만들어 갑니다.



YONSEI AMP

2008. 신년호 vol.28

ADVANCED MANAGEMENT PROGRAM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옐로우캡은
브랜드 로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존중하는
기업이념을 담은 동근 원에 노란모자를 쓴 웃는 얼굴로
고객의 물품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옐로우캡 서비스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 옐로우캡

택 배 1588-0123

이 사 1544-2424

새로운 통신생활이 시작됩니다.



LiITS LIVING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070**

LiITS 070
 화상통화 무료 · 가입자가 무료통화 · 평생자기번호 · 가입비 무료

30년간 학원 교육의 선두에 서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대한민국 대표학원

DREAM & HOPE



“대학학원”과 “한샘학원”이
 둘이 하나 되어 새롭게 탄생된
 고품격 학원

목동 **드림** 대학학원

상담문의 (6층) 2651-5151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 바로 연결)

무선
대입

대학학원
 현대평화점
 서울 영인구목동 405-2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
 종합반 ■ 고 등 부 2651-5151
 ■ 초·중등부 2654-8877
 단과반 ■ 고입·대입 2646-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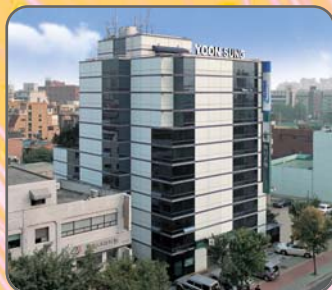
가양캠퍼스
 대학한샘학원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0-5 이스타빌 2층
 가양테크 사거리 우성마트 1층 옆
 그룹과외전문 T. 3664-3080

unowalk
High function casual wear

내몸은 미래의 섬유를 원한다!

최첨단 고기능 신소재 섬유 - 나노&자수정섬유 출시!

메모리, 리얼메탈, 나일론, 폴리면스판, 나이론 폴리면교직,
남녀 케주얼아웃더웨어, 스포츠, 리조트웨어용원단,
기능성 스페셜코팅(카본, 피그먼트, 왁스, 엠보싱기타) 등.



- 1.투습도 운동 등으로 생긴 열이나 땀을 방출하고 탈취작용으로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 2.내수압 비나 눈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내수압 30,000MM 가능 / 30,000GR (초산칼슘법))
- 3.항박테리아 항박테리아 기능이 첨가된 웰빙 세라믹 신소재입니다.
- 4.보온성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항상 36.5°C로 유지해주는 하이테크 소재입니다.
- 5.자외선 방지 99% 자외선이 차단되는 꿈의 신소재, 기능성 원단입니다.



본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7-3 도진빌딩 5층
Tel / 02-413-7700
Fax / 02-413-3887
E-mail / ystex@ystex.com
Homepage / www.ystex.com

공장
대구 서구 비산7동 2024-12
Tel / 053-354-8224
Fax / 053-354-8227

베트남 지사
NOVOTEL GARDEN PLAZA BUSINESS RM 401
NGUYEN VAN TROI ST, TB DIST. HO CH MINH
Tel / 84-8-997-2942
Fax / 84-8-844-0242

중국 지사
SHANGHAI MINHANGQU, HE CHUAN
RD 3089 FUQUN BUSINESS B/D, A
5FL, ROOM-B
Tel / 86-21-5153-9916 Fax / 86-21-5820-7635
E-mail / lucena@lucena-sourcing.com

 **(주) 윤성텍스타일**
YOON SUNG TEXTILE, INC.

WINGTEX

Family Brand

FINETEX

HealthyLan

Graphite

unowalk

unotex

DELIVERY SPECIALIST

대형화물도 자이언트아시아가 앞서 갑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신! 자이언트아시아의 약속입니다



중 국, 아 시 아 1 일 배 달
미 주, 유 럽 1 일 배 달
중 동, 남 미 2 일 배 달

국제특송화물 서비스(Door To Door)
C.O.B서비스(Hand Carry)
항공수출/수입화물 운송서비스
해상수출/수입화물 운송서비스
3자 물류서비스(3PL)

예약 및 발송문의 전국 어디서나

1588-7457

Giant
ASIA

자이언트아시아(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645-42 자이언트빌딩
TEL : (02)2666-7475(代)
FAX : (02)2666-7044

사무총장 원 제 철 (47기, 자이언트아시아(주) 대표이사)



www.giantasia.co.kr



진보식품 알지김치

30년전,
그리고 30년 후를 생각합니다.

(주)진보식품은 일일 생산량 40톤이 넘는 중견급 규모의 한국 전김치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2003년 5월 ISO 9002 인증획득을 마친 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고품질의 김치로 여러분 곁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자체 품질시험실을 두고 품질관리를 하므로 제품 품질검사 및 고추 배추 등의 원·부자재의 각종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제품으로 드리는 것은 물론이며, 산지에서 계약재배한 우리 채소를 사용해 신선한 남해의 액젓으로 담가내는 진보의 알지김치는 그 맛이 특별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사회단체 및 독거노인에게 김치를 무상 제공하는 등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의 미덕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찾으시는 여러분께 진보김치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모습을 드리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JINBO FOODS CO., LTD.

(주)진보식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TEL 02)406-7226, 430-9610, 080-080-1988
FAX 02)430-7359, E-mail: Jinborg@hanafos.com
www.kimchibox.com

廈象

새 해가 솟는다
어제 솟던 해도 아니고
내일 솟을 해도 아닌
새 해가 솟는다

새 날이 온다
간 날도 아니고
올 날도 아닌
새 날이 온다

새 해를 주시는 님
새 날을 주시는 님
자극한 사랑주시는 님
내 몸바쳐 사랑하올 님

맨날
새로운 것만 주시는 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님



詩人 廈象 辛永學

48기 문화이사
(사)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16



22



7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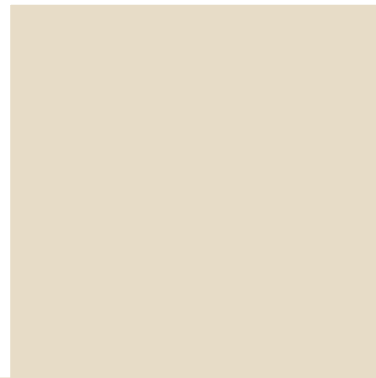
48



26



30



72



50



52

YONSEI AMP

2008. 신년호 vol.28

발행인 김승제 편집인 원제철 발행처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6-21 대학학원빌딩 6층 사무국 Tel. 02)702-7554, Fax. 02)2654-3556
기획 김은주 편집·제작 (주)티앤아이미디어 02-785-5346 인쇄 상림문화(주) 031-948-5600

Section 1. AMP News

- 16 Special News 1 제13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 22 Special News 2 연세 경영전문대학원장배 골프대회
- 26 Special News 3 2007 연세 AMP 가족 동반 축제
- 28 Seminar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 30 Association News 상임이사회 및 동문회 상반기 행사
- 34 Executive Commission 제8대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단 출범
- 36 Alma Mater News 모교 소식

Section 2. On the Cover

- 38 Theme Story 1 일류 CEO의 스피치 리더십
- 42 Theme Story 2 리더십이 변한다, 코칭형 리더십
- 46 Interview 1 58기 이세형 동문·(주)엘로우캡 대표이사
- 48 Interview 2 63기 김태암 동문·(주)씨씨엠프라자 대표이사
- 50 Interview 3 63기 김영주 동문·(주)엔케이바이오 회장
- 52 Interview 4 64기 권병국 동문·(주)경기도시개발, 양평웨르빌 회장
- 54 Successful Keyword 사람을 얻는 전략적 칭찬의 기술

Section 3. Trend

- 56 Trend Report 새로운 부동산 제도 꼼꼼 가이드, 제도를 알면 길이 보인다
- 58 Healthy Life 웃음의 건강학, 유머로 건강을 지켜라
- 62 Well-Being 색을 지닌 채소에서 건강을 읽는다
- 64 Leisure 댄스 스포츠에 도전한다, 'Shall We Dance'
- 68 Culture 예술에 마케팅을 접목시킨 것은 기업의 안목이다, 아트마케팅
- 70 Column 신년 소망을 기원하며
- 72 Travel 1 섬진강, 그곳에선 누구나 시인이 된다
- 76 Travel 2 골프집행부, 북해도로 단합대회를 가다
- 78 Travel 3 59기 향이 머무는 설악산의 추억
- 80 Travel 4 여행을 통해 상대를 알고 배려심을 배우다

Section 4. AMP People

- 82 Staff Greeting 원제철 사무총장의 신년인사
- 84 Alumni Movement 1 63기 동정 및 주소록
- 86 Alumni Movement 2 64기 동정 및 주소록
- 88 Alumni Movement 3 동문 동정
- 92 Notice Board 동문 게시판

• YONSEI AMP는 연세대학교 AMP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며, 동문들에게 발송되는 잡지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사진 등은 무단 복사·전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국 60주년의 힘찬 발로(發露), 연세 AMP의 기상을 드높이며...

연세 AMP 동문들도,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 운용 방향에 발맞추어 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힘써야 합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의 일원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공동체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연세 AMP 동문 여러분께!

2008 무자(戊子)년이 밝아왔습니다. 다산과 다복의 해에 걸맞은 풍요로운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연세 AMP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건국 60주년인 무자년에 교수신문은 올해의 희망을 담은 4자성어로 '광풍제월(光風霽月)'을 뽑았습니다. '맑은 날의 바람, 비 갠 후의 달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풍제월(光風霽月)은 훌륭한 성품이나 잘 다스려진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써, 그동안의 갖가지 난제가 풀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소망을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세 AMP 총동창회는 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간의 행사와 함께 동문 회원의 근황, 동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 학교 소식 등을 엮어 연세 AMP 총동창회는 「제28호 연세 AMP 총동창회보」를 발간 하였습니다. 28호의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여러 동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MP 동문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현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악재에 부딪혀 저(低)성장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6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실질소득과 일자리 감소, 이자부담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의 향후 거시 경제 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선진화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뛰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협동하고 희생할 줄 아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이룩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적뿐만 아니라, 이번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연세 AMP 동문들도,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 운용 방향에 발맞추어 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힘써야 합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의 일원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28번째나 된 동창회보는 우리의 기록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훗날 자랑스러운 기록이었다는 평가를 위해 AMP 총동창회는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또한 AMP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자년 AMP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가내 행복과 안녕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2008년 2월

연세 AMP 총동창회장 김 승 제



동문간의 화합을 확인하는 매개체, 연세 AMP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올 2008년 정시모집에서 우리 연세 경영대학은 수능 전 영역 1등급 학생 121명을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그간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과 명성에 힘입어 우수한 학생들을 대거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해 온 경영대학 신축 공사가 2008년 이른 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 AMP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무자년 새해는 새 대통령 취임과 4월 총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5년의 첫 해이기에 기업인들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2008년 정시모집에서 연세 경영대학은 수능 전 영역 1등급 학생 121명을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그간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과 명성에 힘입어 우수한 학생들을 대거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해 온 경영대학 신축 공사가 2008년 이른 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주축 역할을 맡고 있는 수많은 경영지도자들을 배출한 연세 경영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자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중심에 서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을 추구해 오신 AMP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이 쌓아온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더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처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개인적인 역량 증대와 선진적 기업 경영에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경영자과정의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AMP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영대학에서도 세계 변화에 앞서가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고, 최고의 경영인들을 선발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모교 연세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어, 최고경영자과정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문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수들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8호 연세 AMP 총동창회보」를 발간하는 김승제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장단 및 임원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세 AMP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김 태 현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에 보내주신 동문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실패와 역경의 과거가 있을 때에 그 의미가 더욱 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더욱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해가 되시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훌훌 털고
<연세 AMP 총동창회>와 함께
힘찬 새 출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는 알찬 결실을 맺어줄 것입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는 64개 기수 4,000여 동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최고경영자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가내 웃음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진 일동



AMP News

Special News 1	16	제13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Special News 2	22	연세 경영전문대학원장배 골프대회
Special News 3	26	2007 연세 AMP 가족 등반 축제
Seminar	28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Association News	30	상임이사회 및 동문회 상반기 행사
Executive Commission	34	제8대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단 출범
Alma Mater News	36	모교 소식

30년을 이어온, 경영인들의 장(場) 제13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한국 경영의 진면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할까? 혹시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AMP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오산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 회사, 관공서의 CEO들이 2007년 11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세 AMP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살아 숨쉬는 연세 AMP 동문들의 뜨거운 축제 속으로 빠져보자.



연세 AMP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1,000여 명의 동문들

제13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 연세AMP의 긍지와 근원의 원천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제 13회를 맞은 가운데 연세라는 이름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행사는 공식행사 이전에 동창회 홍보 CD 상영으로 그 서막을 올렸다. 동창회의 역사와 운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된 CD 상영에 참석 동문 모두는 귀를 기울였다. 이어 원제철 사무총장은 식전 인사와 더불어 “처음 제작이라 미흡하지만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 대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CD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것.”이라며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2007 연세최고경영인의 밤'은 김승제 회장과 이두철 명예회장, 이정익 상임고문, 김동주 상임고문, 황병주 고문, 김월용 수석부회장, 김영택 골프회장 등의 회장단과 63기 최재진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수단의 입장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1. 김승제 총동창회장의 개회사
2. 김태현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



1. 사회를 맡은 48기 박진규 상임부회장과 성우 김옥경
2. 가수단 입장
3. 국기에 대한 경례
4. 김승제 총동창회장과 공로상 수상자들



원제철 사무총장이 행사 총괄을 맡고 48기 박진규 상임부회장과 성우 김옥경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태현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1기부터 64기까지의 동문과 그 가족들이 행사장을 빼곡히 메운 가운데 치러졌다. 김승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아낌없이 협찬해 주시는 동문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던 최고경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다이내믹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강인한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알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공로상 수상자와 연세최고경영 대상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태현 원장은 “세계 속에서 나날이 발전해 가는 연세 최고경영자 여러 동문과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다지는 이 자리에 함께 힘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승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세 경영전문대학원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변화에 앞서가도록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고, 최고의 경영인들을 선발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13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자랑스런 연세최고경영대상

-연세AMP, 역사의 산실

이어,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라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동창회 활동에 앞장 선 동문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었다. 공로상은 47기 이상규 기획이사, 48기 홍순원 의전이사, 53기 황용출 체육이사, 57기 남재현 상조이사, 59기 박민자 여성상임부회장, 61기 차의주 동문이 수상하였다. 행사는 끝이어서 진행된 2007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회활동 및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부문별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인 ‘제13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전년도 수상자이자 동창회 수석부회장이신 손영식 (주)조양 회장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심사 보고에 의거하여 동창회가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경영 철학 실천, 경영 실적, 사회 봉사활동,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엄정하게 심사 한 결과, 운송서비스 부문에 58기 이세형 (주)엘로우캡 대표이사, 정보통신 부문에 김태암 (주)씨씨엠프라자 대표이사, 기술개발 부문에 김영주 (주)엔케이바이오 회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세 AMP의 뜨거운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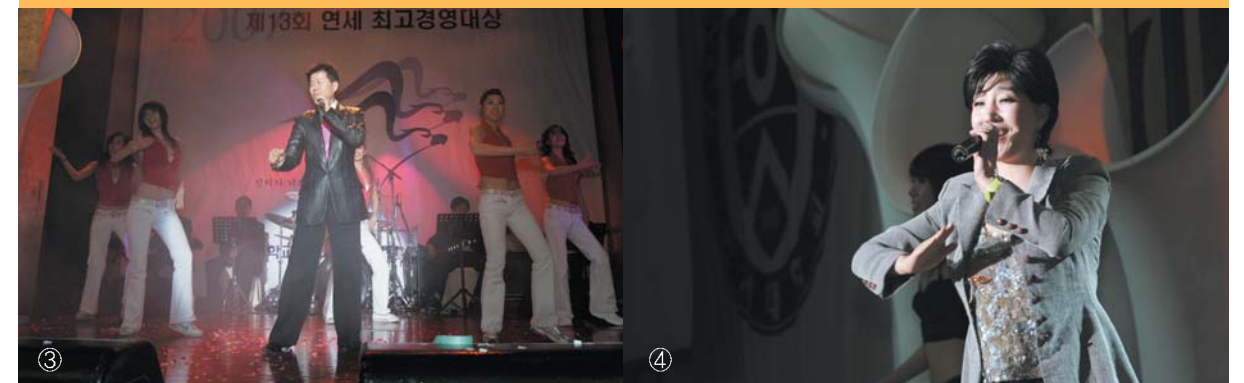
-2008년, 용비를 다짐하는 AMP

시상식으로 한껏 고조된 행사장 분위기는 MBC 무용

단의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통해 2부로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국내 최고 MC인 허참이 진행을 맡았다. 트로트 가수 강민주와 자니 브라더스의 멋진 연주, 멋지게 펼쳐진 마술 쇼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동문들은 트로트의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가수 태진아의 열창에 열띤 환호를 보냈다. 다채롭게 진행된 동문 한마당과 푸짐한 경품 추첨이 행사의 재미를 더한 가운데 61기 임노원 동문의 배우자 강성숙 동문이 순금 30돈인 ‘행운의 열쇠’를 거머쥐는 행운을 가졌다. ‘2007 연세최고경영인의 밤’은 동문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는 연세 AMP 동문들에게 새롭고 희망찬 2008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1. 2부 행사를 진행한 허참 2. 강강을 추는 MBC 무용단 3. 열창하는 태진아 4. 트로트 가수 강민주



운송서비스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주)옐로우캡 대표이사 이세형
2005년도 최고경영자과정 58기 수료

주요경력

1989년 05월 서울 영등포 지역 이사 및 보관 서비스 사업 시작
1996년 07월 로젠(주) 이사 부분 영등포 지사장 역임
1999년 09월 로젠택배(주) 영등포, 용산 지사장 역임
1999년 09월 로젠택배(주) 사외 이사 역임
2002년 02월 (주)옐로우캡 관리이사 역임
2002년 11월 (주)옐로우캡 전무이사 역임
2003년 11월 ~ 現 (주)옐로우캡 대표이사

회사연혁

1999년 옐로우캡 URL 등록(www.yellowcap.co.kr)
2001년 MBC, SBS, iTV 런칭광고 개시
2002년 03월 옐로우캡 전국 택배업무 개시
2003년 12월 스포츠서울 / Queen 브랜드대상 선정
2004년 09월 4개센터 운영, 택배영업소 1,300명 돌파
2005년 10월 옥션과 업무 제휴 / 중국 특송 사업 MOU 체결
2006년 02월 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 제휴
2007년 06월 이천종합물류터미널 준공

수상경력

2005년 11월 간설교통부 장관 표창(모범운수사업자)
2006년 11월 물류대상 수상(매일경제상)

정보통신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주)씨씨엠프라자 대표이사 김태암
2007년도 최고경영자과정 63기 수료

주요경력

1987년 무선호출기 사업
1998년~2007년 現 이동통신영업 및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개발사업
2004년 (주)씨씨엠프라자 법인 설립
2006년 이동통신 별정사업을 통한 가입자 50만 유치

회사연혁

1987년 무선호출기 사업 진출
1992년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 전문점 개설
1994년 에릭슨(Ericsson) / 노키아(Nokia) 부산경남 총판
1996년 한국이동통신(현 SKT) / KTF 대리점 사업진행
2001년 시아버뱅크 총판 계약 체결
2004년 (주)씨씨엠프라자 설립
2005년 삼성전자 / 팬택애크리텔 물품공급계약 체결
2007년 별정 1호 사업자 등록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터넷전화(VdP) 품질인증

수상경력

1997년 LG텔레콤 전국 최단기 8만 가입자 수상
1997년 LG전자 CYON 상반기 판매우수상
2000년 LG텔레콤 판매 대상수상
2004년 LG텔레콤 600만 대상수상
2005년 LG텔레콤 CYON상 수상
2006년 LG텔레콤 700만 공로패 수상

기술개발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주)엔케이바이오 회장 김영주
2007년도 최고경영자과정 63기 수료

주요경력

1989년 ~ 1997년 (주)응용전자운영
1999년 ~ 2001년 (주)생용디지털 영업이사
2003년 ~ 2006년 (주)코다인 회장
2006년 ~ 現 (주)엔케이바이오 회장
(주)엔베이트 회장
(주)웬디바이오 고문
네오딘의학연구소 고문

회사연혁

1986년 8월 한울방직(주) 창립
1992년 3월 주식장외시장(KOSDAQ 등록)
1994년 4월 섬유연구소 설립
1995년 6월 법인변경 - 주식회사 한울
1996년 6월 섬유연구소 인증(한국 산업 기술 진흥협회)
1997년 6월 고밀도 니들편출 신기술 인정(중소기업청)
1999년 11월 ISO 9000인증
2003년 2월 심지기공(주) 증설
3월 경북 군위공장 증축
2005년 12월 세포치로제 품목허가를 위한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
2006년 9월 엔케이바이오 인터네셔널(주) 상호변경
2007년 3월 (주)엔케이바이오 상호변경
6월 엔케이바이오 부설 메디컬센터 설립
8월 함남면역세포치로제 NKM 식약청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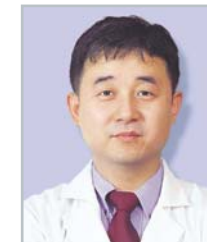
공로상



이상규 (47기)
기획이사
(주)유엔아이 대표이사



홍순원 (48기)
의전이사
(주)한스컴 대표이사



남재현 (57기)
상조이사
(주)프렌닥터/ 프렌닥터 내과 | 원장



황용출 (53기)
체육이사
진성건설(주) 대표이사



박민자 (59기)
여성상임부회장
포디존 그래픽스 | 대표



차의주 (61기)
(주)영도금속상사 | 대표이사

그린 위의 열정, 화합으로 흥인원하다 연세 경영전문대학원장배 골프대회



연세대 AMP의 단합, 골프대회까지 이어져

연세 AMP 동문들을 위한 축제 행사로 마련된 '연세 경영전문대학원장배 골프대회'가 2007년 10월 8일 양주CC에서 개최되었다. 40팀 160명이 함께 한 이번 대회는 전홀 샷건, 18 HOLE 신페리오 방식으로 기수별 대항전은 (1팀 선수조) 핸디 없이 합산처리하고 일반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승제 회장은 "연세 AMP 제8대 총동창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영택 골프회장 및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택 골프회장 역시 "신나는 모임, 유익한 모임, 보람찬 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장배골프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동문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의를 다지는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김태현 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연세 총동창회 집행부에게 감사하고 다른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열정과 끈끈한 우정에 감탄한다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행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시작한 이번 대회는 염려했던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늘도 AMP 총동창회를 지키고 축복하는 듯한 행운의 대회였다.



1. 골프대회 시상식
2. 골프대회 축하 연주와 만찬
3. 김승제 총동창회장 인사
4. 골프 집행부의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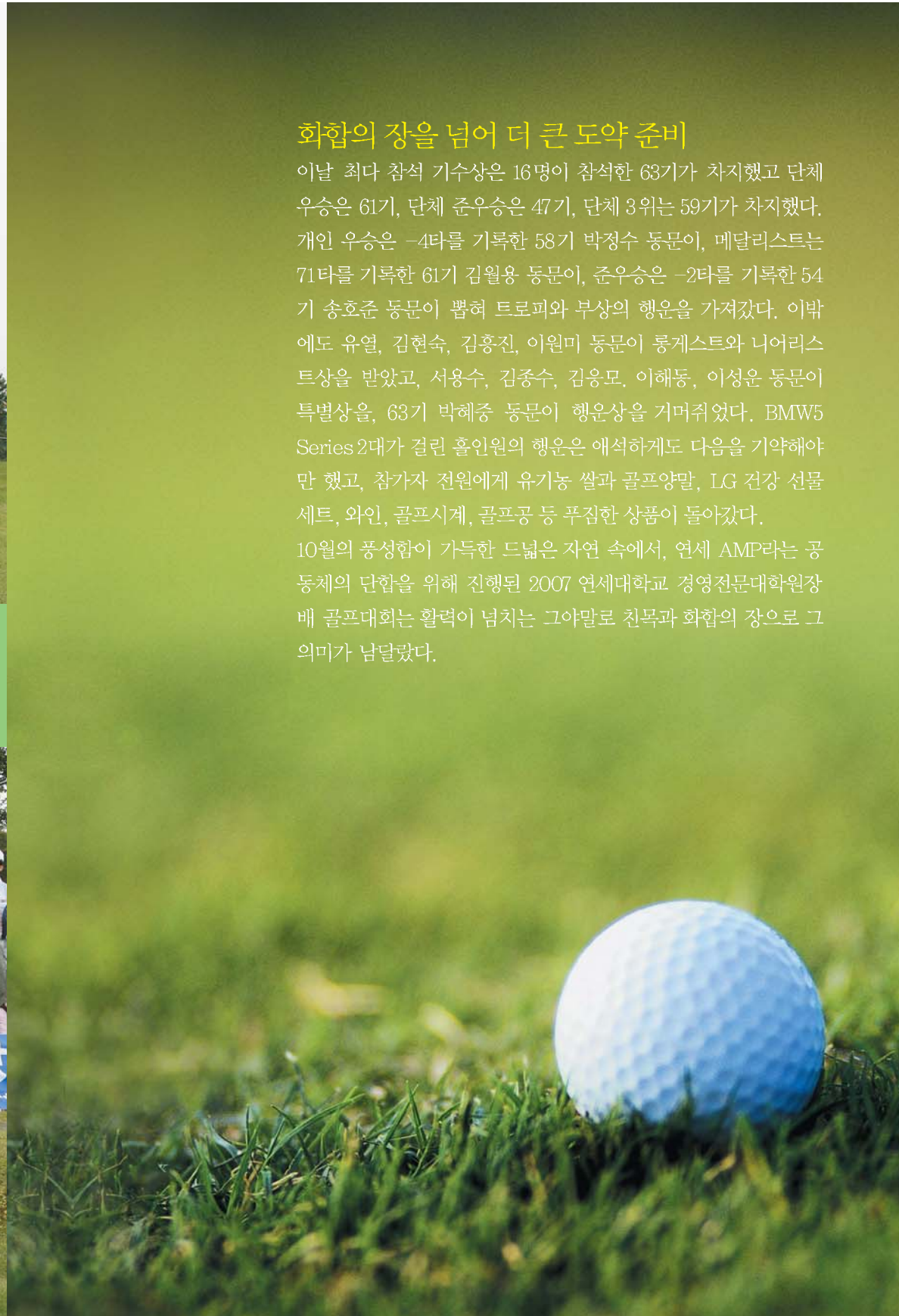


김태현 원장, 김준석 전 원장, 김영택 골프회장, 김동주 상임고문 등 회장단 티샷과 기념 촬영



회합의 장을 넘어 더 큰 도약 준비

이날 최다 참석 기수상은 16명이 참석한 63기가 차지했고 단체 우승은 61기, 단체 준우승은 47기, 단체 3위는 59기가 차지했다. 개인 우승은 -4타를 기록한 58기 박정수 동문이, 메달리스트는 71타를 기록한 61기 김월용 동문이, 준우승은 -2타를 기록한 54기 송호준 동문이 뿔뿔히 트로피와 부상의 행운을 가져갔다. 이밖에도 유열, 김현숙, 김홍진, 이원미 동문이 룡게스트와 니어리스 트상을 받았고, 서용수, 김종수, 김응모, 이해동, 이성운 동문이 특별상을, 63기 박혜중 동문이 행운상을 거머쥐었다. BMW5 Series 2대가 걸린 홀인원의 행운은 애석하게도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유기농 쌀과 골프양말, LG 건강 선물 세트, 와인, 골프시계, 골프공 등 푸짐한 상품이 돌아갔다. 10월의 풍성함이 가득한 드넓은 자연 속에서, 연세 AMP라는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진행된 2007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배 골프대회는 활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그 의미가 남달랐다.



관악산의 정기를 품은 함성의 메아리 2007 연세 AMP 가족 등반 축제



2007년 11월 3일 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등반 축제가 관악산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의 비상을 꿈꾸는 8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포부가 담긴 이번 등산은 김승제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인 이번 행사는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성황리에 끝났다.

늦가을이라 추울 것이라던 염려와 달리 햇살이 비치는 하늘은 여느 가을 날씨 못지않게 화창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 단위로 나온 동문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등산 조끼, 등산 모자, 간식과 생수를 챙겨 집합 장소로 향했다.

김태현 원장과 김승제 회장을 포함하여 제2광장으로 집합한 동문과 가족 400여 명은 각각의 코스를 선택하여 하나 둘 산을 올랐다. 조끼와 모자를 챙겨 입은 동문들은 관악산의 뛰어난 비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약 1시간 30분간 산행하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경계에 있는 관악산은 높이가 629m로 산세는 험한 편이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도심에서 가까워 많은 등산객들이 몰렸다. 등산로에 지어진 산사는 경치가 빼어나 동문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져 나왔다.

등산을 마친 후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제2광장으로 모인 동문들을 맞이한 건 집행부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하모니카 연주였다.

산을 올리는 하모니카 연주는 동문들 뿐 아니라 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멋진 음식이었다. 연주에 취하고 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였을까? 동문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어깨동무를 하며 우정을 나누고, 합창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던 등산 축제는 일상생활에 지쳐있던 동문들의 심신에 활력을 주는 뜻 깊은 행사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008년을 기약하였다.



1. 행사 진행하는 원제철 사무총장(맨 오른쪽)과 준비위원들
2. 산을 오르는 동문들
3. 숲 속의 하모니카 연주
4. 정상에서 찰칵!



임원진을 위한 발돋움, 2007 추계 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지난 2007년 9월 4일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진의 세미나에서 이금룡 소장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 성공 기업의 인재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연세 AMP 총동창회의 임원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조언하였다.

이금룡 소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위원회 위원장, 코리아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원천기술수출협회 회장, KR알리아인스(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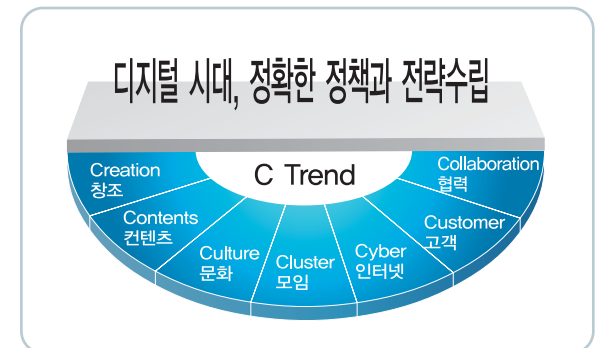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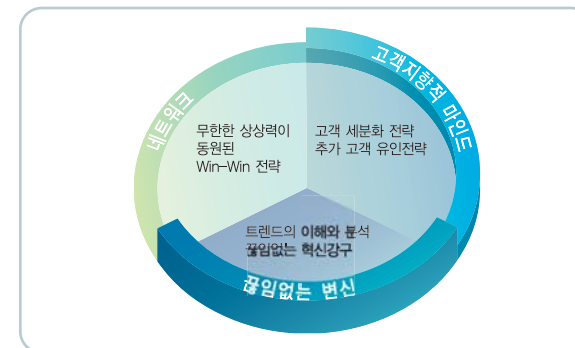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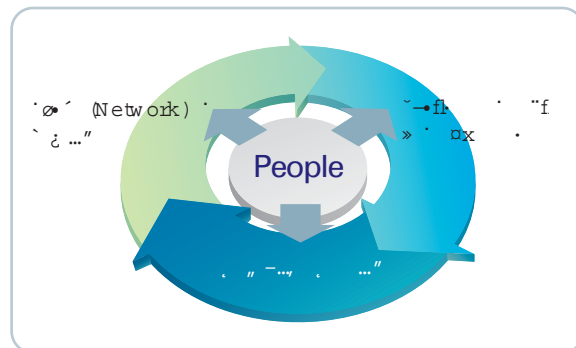


제8대 연세 AMP 총동창회를 이끌 임원진을 위해 2007년 9월 4일 조선포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7 추계 세미나는 김태현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승제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 1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김승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무더위 속에서 동문들의 건강을 챙기며 "세계화의 무한 경쟁 상황 하

에서 보다 앞선 경영 전략으로 경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이 시대에 걸맞은 창조적 리더십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바라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유용한 정보를 고르고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태현 원장은 끊임없는 활동으로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마음에 충만함을 더해주는 연세

AMP 총동창회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자리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더욱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작한 동창회 홍보 CD를 상영하였으며 참석 임원들 모두 큰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만찬이 이어진 후 김승제 회장의 소개로 강의를 시작한 이금룡 소장은 농업혁명, 공업혁명을 지나 정보화

혁명인 제3의 물결을 넘어 이제는 창조성·상상력의 물결인 제4의 물결이 도래하였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영의 산업을 이루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정한 리더는 인재들 '스카우트'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해내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앞서가는 사업 경영 전략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한 동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연세 AMP의 힘찬 첫 발걸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힘찬 출발을 다지는 2007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은 연세 AMP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07 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 취임식이 김태현 원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동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하였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김성만 감사(26기)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김승제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2006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승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는 단 한명의 이의 없이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 참석 동문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 이정익 상임고문(22기)이 임시 의장으로 추대되어 총회가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만장일치의 뜻으로 큰 박수를 보내어 제8대 회장으로 김승제 회장 연임이 정식으로 가결되어 선포되었다.

아울러 감사 선출은 7대 감사인 김성만 감사가 51기 황진호 변호사와 60기 강철웅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고 이 역시 참석 동문의 만장일치로 위촉되었다.

김승제 회장의 취임사로 2부의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이 계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어 한편으로는 모교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쓸 것이며 우리 모두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해 동창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제8대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동문들의 성원을 부탁하였다.

김태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승제 회장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AMP 총동창회 동문들이 학교 학부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해 준다면

최고경영자과정 등이 더욱 빛날 것이라며 학교와 AMP 총동창회의 돈독한 유대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승제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임인배 동문(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AMP가 김승제 회장을 필두로 뚝뚝 뚝뚝 뚝뚝이면 세계 강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동주 고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워! 해! 세!"로 건배 제의를 하였다.

2007년 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 취임식은 좌우로 펼쳐진 멋진 아경과 코리아스윙밴드의 멋들어진 재즈로 그 여운을 남기며 성황리에 끝났다.



연세 AMP의 비상(飛上),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회



연세 AMP의 또 다른 힘찬 행보가 시작되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연세 AMP의 성공을 자축할 수 있길 바라며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임시총회 및 제8대 임원 위촉식'에 앞서 동창회의 회칙개정 및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회 회의가 2007년 6월 13일 63빌딩에서 있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1994년 제정된 이래 그 명칭이나 내용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 부분과 상이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동창회 회칙개정의 건과 제8대 임원진 구성의 건, 임원분담금 건이 논의되었다. 회칙개정에 대해서는 전원 의견을 같이 했고 다만 일부 조정이 필요한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및 별도의 소위원회가 최종 점검, 조정하여 그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제8대 임원진 구성에 우선하여 차기 사무총장으로 47기 원제철 상임이사(전 골프 총무국장)가 김승제 회장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어, 회장단, 자문위원단, 상임이사단 구성 안이 논의되었으며 각 임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대다수 임원의 동의로 임원 구성(안)이 결의되었고 부회장 및 이사는 각 기의 추천을 받아 임원 위촉식 전까지 구성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창회의 운용 기금이 될 임원 분담금(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AMP 단합과 집결의 본보기 행사 준비위원 발족식



상임이사회에서 거론된 하반기 주요 행사에 앞서 총동창회에서는 행사 준비위원을 선출하여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하반기 주요행사인 9월 임원 세미나, 10월 원장배 골프대회, 11월 등산대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을 위한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스태프를 구성하여 단결된 모습으로 연세 AMP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였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행사 준비위원 발족식이 8월 13일 김윤희 골프총무국장 사무실에서 있었다. 10월 원장배 골프대회와 11월 등산대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 준비를 앞두고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이번 발족식은 상임이사 및 준비위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보다 체계적인 행사 운용을 목표로 하였다. 원제철 사무총장 주관으로 모인 20여명의 준비위원들은 주요 업무와 진행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행사 준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창회 도약의 주춧돌 제8대 상임이사회 회의



연세 AMP 총동창회는 2007년 7월 18일 논현동 Winner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이사 4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8대 AMP 핵심 실천 사항과 하반기 주요 행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제8대 AMP 총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써 줄 임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향후 우리 동창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더 큰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상임이사회 회의가 지난 7월 18일(수) 논현동 Wimer에서 있었다. 동문들의 바쁜 일정으로 조금 늦게 시작된 이날 회의에는 김승제 총동창회장, 황진호 감사, 강철웅 감사, 채봉석, 박진규, 이경하, 박민자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임이사들이 참석하였다.

원제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40여명의 참석자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1부 진행이 시작되었다.

8대 AMP가 공약한 핵심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동창회 사업 경영의 투명화, 열린 동창회, 참여하는 동창회로의 발전
- (2) 전 동문에게 마음의 힘이 되어주고 상부상조하는 동창회로의 발전
- (3) 골프회, 등산회, 송년회의 활성화로 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창회의 위상 극대화



김승제 회장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어 원제철 사무총장은 동창회 수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임이사진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참여·봉사로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을 가동하여 개인 사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동창회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임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고 수익사업으로는 회보제작, 월간 광고 소책자 제작, 홈페이지 활성화 등이 있고 동창회 홍보용 CD 제작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준비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하반기 주요 행사로 9월 임원 세미나, 10월 원장배 골프대회, 11월 등산대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이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스태프를 구성하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김승제 회장은 화합을 위한 건배 제의로 회의장이 떠나갈듯이 "위하세"를 외쳤고 모두들 그에 버금가는 한 목소리로 화답하였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제8대 총동창회 운영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 오랜만에 격의 없이 회포를 푸는 자리였으며, 모두들 흥겨운 속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한 치의 모자람이 없는 회의였다.



YONSEI AMP 기고 안내

본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모든 동문들과 경영인에게 토론의 광장이 되고 결속의 고리 역할을 하는 동문 정보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더욱 알찬 YONSEI AMP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제 목	자유
분 량	A4 3매 내외
접 수	수시
제출처	서울 양천구 목1동 406-21 대학학원 빌딩 6층 사무국 전화 : 702-7554~5 팩스 : 2654-3556
E-mail	yonseiamp@paran.com
홈페이지	www.yonseiamp.co.kr

제8대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단 출범

-열린 동창회, 참여 동창회를 이루기 위한 발판 다짐

제8대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단 출범은 막중한 책무를 맡아 앞으로 동창회를 위해 헌신 할 것이다. 한 집단의 발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에 제8대 임원들은 동문 모두의 힘을 합쳐 '열린 동창회, 참여하는 동창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6월 21일 조선히호텔에서 '제8대'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AMP 총동창회의 '임시총회 및 제8대 임원위촉식' 이 있었다.

김태현 원장, 김승제 회장, 김동주 고문을 비롯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현 원장은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격려사를 시작하였다.

김태현 원장은 "7대 회장으로서 동창회와 연세최고 경영자 과정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던 김승제 회장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상의 시도로 제8대 회장으로 재추대된 것을 진심

으로 축하하며 오늘 위촉되시는 모든 임원들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제 총동창회장은 제8대 총동창회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아 앞으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할 것이며 한 집단의 발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동문 모두의 힘을 합쳐 '열린 동창회, 참여하는 동창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하였다. 더불어 제8대 임원진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원천으로 동문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우선으로 꼽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김태현 원장의 격려사와 김승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진행된 1부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1994년 제정된 이래 그 명칭이나 내용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 부분과 상이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동창회의 회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6월 13일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회에서 검증 받고 소위원회를 거친 회칙개정 원안이 임시총회에 상정되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개정 회칙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전문대학원로의 명칭 변경, 제4장 제17조 운영위원회 항목 신설, 제7장 제24



김태현 원장의 고문단 추대



현진왕 7대 사무총장 공로패 전달



김동주 상임고문의 건배제의



황진호, 강철웅 감사 위촉



상임부회장단 위촉



원제철 사무총장 외 상임이사단 위촉

조 상조회 신설, 상벌 명칭을 윤리로 바꾸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현진왕 7대 사무총장에 이어 원제철 8대 사무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2부에서는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수고한 제7대 현진왕 전 사무총장에

게 전 동문의 뜻을 담은 공로패 전달식을 시작으로 제8대 임원 위촉식이 거행되었다. 앞으로 2년간 8대 AMP 총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봉사를 아끼지 않을 임원들의 추대장 전달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직분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미리 보는 2008년 연세 마스터플랜



120주년 기념 학술정보관 등 기반 시설 확충

연세대학교는 2008년에도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그 기반이 되는 시설 확충을 진척시켜나갈 계획이다.

연세 발전의 새로운 핵이 될 송도국제회복합단지가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설이 본격 추진되며, 120주년기념 학술정보관이 완공되고, 국제2학사, 후생복지관, 종합체육관, 경영대학, 법과대학 제2광복관, 공학강의동, 유진어린이집, GS산학협력관 등의 신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병원인증인 JCI 인증 획득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한 의료원에서는 신 종합관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며, 암전문병원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원주캠퍼스에서는 대학교회와 행정 서비스동, 첨단 실험강의동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회복합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6만㎡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회복합단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 중 142만㎡ 규모로 조성되는 송도국제회복합단지는 올해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가 2010년 3월에는 송도국제회복합단지가 개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교육 및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송도국제회복합단지에는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 5,000명이 함께 거주하는 'Global Campus', 해외명문대학의 분교 등이 입주하는

'Joint University Campus', 세계 우수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R&D Campus', 거주·문화 공간 'Global Academic Village'와 시민 공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20주년기념 학술정보관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인 120주년 기념 학술정보관이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 중앙도서관 뒤편(장기원기념관, 연구관 자리)에 자리 잡은 120주년 기념 학술정보관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3,428㎡(10,112평) 규모로, 1층에는 Information Commons, 학술정보교육실, 2층에는 멀티미디어센터, 3층에는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 4층에는 과학기술 분야 자료 열람실과 전자저널·정보 검색실, 5층에는 법학전문도서관, 6층에는 세미나실, 법학연구원 등, 7층에는 홀, 펜룸, 지하에는 U-라운지와 보존서고,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2광복관은 2009학년도 봄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에 맞춰 완공된다. 제2광복관은 총 6,985㎡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 A동은 모의법정,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인 B동은 법학전문도서관으로 예정되어 있다.

법과대학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국제화에 적합한 법학교육을 실시하여 'Yonsei Law 5-2-10-1 :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톱 로스쿨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2광복관은 주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On the Cover

Theme Story 1	38	일류 CEO의 스피치 리더십
Theme Story 2	42	리더십이 변한다, 코칭형 리더십
Interview 1	46	택배업계의 다윗 옐로우캡, 정상을 노리다
Interview 2	48	24년의 외길 집념, 한국통신산업의 별이 되다
Interview 3	50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꿈꾸다
Interview 4	52	새로운 동창회의 가치(旗幟), 가족문화를 만든다
Successful Keyword	54	사람을 얻는 전략적 칭찬의 기술

일류 CEO의

말 잘하는 것도 경쟁력이다. 최근 뛰어난 말솜씨도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설 학원에서 스피치 훈련을 받는 기업의 리더가 늘고 있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개인의 스피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스피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피치 리더십



“ Episode

리더의 말 한마디는 회사를 살리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로 이끄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물론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은 없으면서 말솜씨만 좋은 것은 리더십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전문 능력을 쌓은 다음에 그것을 말로써 잘 전달하고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예로써,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말솜씨를 갖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철저한 분석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으며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는 처방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실제로 그린스펀은 취임한 지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은 1987년 10월 19일 주가 대폭락으로 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FRB는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처럼 리더의 말은 실제 행동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업에서 리더의 말 한마디가 기업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이 되기도 하는 만큼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의 다섯 가지 스피치 원칙을 살펴본다.

뚜렷한 목표와 흔들림 없는 방침을 세워라

리더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리더의 말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 회사의 구성원들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사로 인해 스트레

스 경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상사의 유형으로 ‘변덕스러운 상사’를 꼽았다. 변덕스러운 상사는 때에 따라 다르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잦다. 이 경우,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왜곡되거나 그 동기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 회사 운영에 혼신을 빚을 수도 있다.

리더의 말이 일관적이지 못한 주된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생각을 충분히 정리해 구성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전달하라

자신이 말한 내용을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리라 생각하는 것은 리더의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교수는 시간에 따른 망각 속도를 실험하여 반복 스피치의 중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에빙하우스 교수는 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습득한 정보의 약 70%를 한 달 이내에 잊어버린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만약 반복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더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리더가 구성원들의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은 구성원들의 회사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리더가 잦은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라

성공의 80%는 자신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용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오피스맥스의 창업자 마이클 퓨어는 창업 초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곧 20개, 50개 심지어 3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우리를 돕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우리가 성공할 때 그 몫을 반드시 나누어 줄 것이다.”라며 기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직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조그만 벽돌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1,000여 개의 대형 매장을 소유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이렇듯 리더의 자신감 있는 표현은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성원들은 리더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하고 말에 책임을 져라

리더와 직원 간의 신뢰 형성은 성과 창출의 핵심 요인이다. 회사 내에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리더의 말이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회사 전체에 신뢰를 형성하려면 리더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조직 내 신뢰 구축을 위해서 리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작은 실수로 한순간에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특히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따라서 리더는 약속을 하기 전,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라

리더는 구성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리더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신만 아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면 상대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얘기할 때는 영업 사원이 자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용하는 원리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고려한다. 리더가 과장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신입 직원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현 방식도 마찬가지다. 듣는 사람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말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



를 잘 이해하는지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평소에 가질 필요가 있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리더가 쉽게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듣는 귀는 작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말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청에도 단계가 있다. 경영학자 토니 알렉산드라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 대한 집중력과 대인 감수성에 따라 리더의 경청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경청의 가장 낮은 단계인 무의지 청취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자신이 이끌어 나가려는 수준을 말한다. 그 다음 단계인 소극적 청취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자신이 다음에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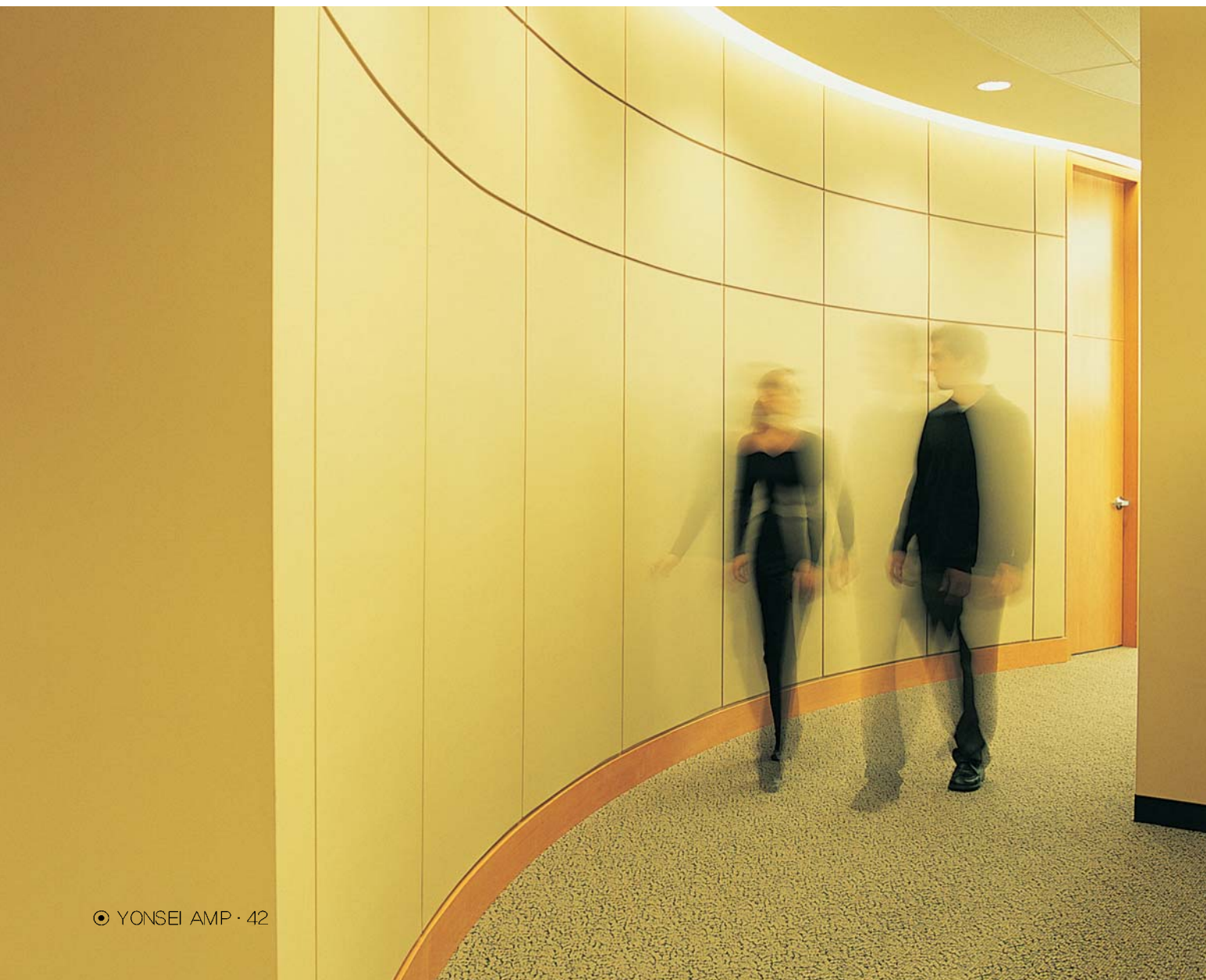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의 의미나 속뜻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 번째 단계는 분별력 있는 청취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장 바람직한 경청의 단계는 적극적 청취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강한 집중력과 주의력을 쏟아 부으며, 대화 내용을 가능한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리더가 적극적 청취의 수준이 되면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구성원의 사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

리더십 있는 CEO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리더십이 변한다, 코칭형 리더십

최근 40~60대 직장 상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의사소통 기술과 리더십이다.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며 회사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면 이러한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과 개인이 코칭에 관심을 두는 이유기도 하다.

자료 _ 한국코치협회(www.kcoach.or.kr) / SPC(www.procoach.co.kr)



“ Episode

- 권위형 상사와 부하직원 -

기획사에서 일하는 김경선 씨는 상사로부터 심하게 질책당하는 일이 잦다.

“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일하란 말이야.”

처음 그렇게 질책당할 때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내 댄에는 열심히 했는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횡수를 거듭할수록 ‘또 시작이구나, 흘려버리는 게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넘기게 됐다.

일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김경선 씨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과정도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는 속상하다. 요즘 김경선 씨는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코칭형 상사와 부하직원 -

무역회사에 다니는 박영란 씨는 잦은 야근과 많은 업무량에 하루하루가 피곤했다. 처음에는 ‘업종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며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했다. 하지만, 상사의 배려와 관심은 그런 생각을 바꾸게 했다. 요즘은 일이 많아도 하루하루가 즐겁다.

“요즘 일이 많았죠? 하지만, 영란 씨는 충분히 해 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일이 장래 영란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요. 그리고 힘든 것은 주저 말고 얘기해요. 서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영란 씨는 상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미래를 생각해 보니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현재 일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군다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상사가 있으니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리더가 이끄는 사회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은 코칭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LG, SK, 현대오일뱅크 등의 기업들은 코칭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고 개발을 위해 조언하도록 지원한다. 덕분에 근무 분위기가 좋아지고 리더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는 게 기업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외국에서도 코칭 리더십이 인기다. 약 1만 명 이상의 코치가 활동하는 미국은 이미 코칭이 큰 시장을 형성했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스쿨의 ‘워렌 베니스’ 교수는 코칭은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간 800억 달러 정도가 기업 교육에 쓰이고 있다.

코칭이 각광받는 이유

코칭에 대한 관심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인데 이렇게 코칭이 각광받는 것은 왜일까? ‘코칭’은 원래 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한 비즈니스 코칭은 직장인 개인의 성과창출을 높이는 것은 물론, 팀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칭의 핵심 역량은 경청하기와 질문하기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통찰력을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코칭 기술을 익혀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자신이 생긴다. 그렇다고 코칭이 만능이란 얘기는 아니다. 코칭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안내다.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기술이 코칭이다

코칭은 코치와 코치 받는 사람 간의 신뢰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주로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코칭은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과정에 초점을 둔다. 코치 받는 사람은 코치가 아닌 자신에게서 해결방안을 찾아내게 된다. 코칭이란 코치 받는 사람이 가진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성과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다.

코칭 대화는 일반 대화와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철저히 코칭의 철학 위에 있다. 코칭 대화의 의도는 상대방의 성장과 성과의 향상이라는 두 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둘째, 코칭 대화는 구조화된 대화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화와 다른 점이다. 구조와 방향성을 가진 대화이므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핵심 대화 기술인 경청과 질문, 메시지, 인정 및 축하 기술이 잘 조화된 대화다.

마셜 쿡이 말하는 코칭의 기술

코칭의 핵심은, 질문이다 ⊙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질문받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생각한다. 반대로 지시를 받으면, 지시만 이행하려고 할 뿐,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상사가 해답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도 별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전문화된 세계에서는 직원들이 상사보다 더 현장을 잘 아는 만큼, 그들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는 게 현명하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질문이다. 단, 질문에도 요령이 있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예, 아니오’ 식의 닫힌 질문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나?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 일은 무엇인가?”라는 식의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상사 혼자 생각하는 조직보다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상사가 있는 조직이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낸다. 그 이유는, 리더의 질문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청은 기술이다 ⊙ 훌륭한 리더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의 기술이다. 경청은 단순히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한자로 청(聽)자에는, 귀 이(耳)와, 임금 왕(王)이 들어있다. 귀를 왕처럼 크게 열라는 의미이다. 옆에는 눈 목(目)자가 있고, 그 아래 일

심(一心)이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마저 열어서 보라는 의미이다. 듣는 것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한자의 구성 요소만 봐도 알 수 있다.

코칭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직원 앞에만 서면 마음의 문을 닫는 리더라면 코칭은 불가능하다. 코칭은 기술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질문과 경청의 단계가 달성될 수 있다. 코칭은 직접적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법은 아니지만, 직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Tip 목표 달성을 위한 코칭의 다섯 단계.

1. 칭찬이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2.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대를 파악하라.
3. 코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라.
4. 코치 받는 사람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라.
5. 분석하고 평가하라.

이 세 형

택배업계의 다윗 옐로우캡, 정상을 노리다

-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택배 세상

‘택배업의 춘추전국시대’는 최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택배업계를 일컫는 말이다. 자본이나 조직력이 약한 중견 택배업계가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장 점유율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옐로우캡은 기존 한진, 현대, 대한통운, CJ GLS ‘빅4’가 주둔하던 택배시장에 진입한 지 6년 만에 대기업들과 당당한 서열구도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다.

택배업계를 평정한 옐로우캡

옐로우캡은 지난 2002년 3월 이세형(58) 동문을 비롯한 5명의 주주가 의기투합하여 만들었으나,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기를 수차례 맞았다. 하지만 2003년 회사가 안정을 찾게 되었고, 5대 대표 이세형 동문이 경영하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당시 회사의 일일 물동량은 340개에 불과했다. 차량 노선수도 22대가 전부였다. 초창기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해 식사할 시간마저도 없었다. 이세형 동문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 25만 Km를 기록할 만큼 안 가본 지역이 없다. 또 새롭게 영업소를 내려고 준비하던 지원자들을 만나고자 노력하여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며 이와 같은 열정이 옐로우캡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불과 6년 만에 일일 물동량이 500배 이상 증가하여 10만 개, 노선수는 500대로 성장하여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 지난해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1,3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물류센터를 경기도 이천에 오픈 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YELLOWCAP, 색깔만큼 튀는 경쟁력으로 승부수

옐로우캡의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학으로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도 항상 원칙을 가지고, 파트너 편에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이세형 동문은 “초창기 전국 택배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열성과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준 영업소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옐로우캡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옐로우캡에 대한 확신과 목표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렬한 색깔을 띠어 자신을 사로잡는 것 같으며 옐로우캡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였다. 옐로우캡의 지속 성장 전략을 3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가 인하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지양한 것이다. 둘째는 틈새시장인 C2C(개인 택배)를 집중 공략하였다. 마지막으로 소(小)사장제 도입으로 경영 핸드 캡을 극복하였다. 옐로우캡의 대기업과 차별화된 소 사장제 도입은 156개 지점, 2,000개 영업소의 일선 영업소에서부터 배송 기사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이런 3가지 요소들이 자본과 조직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옐로우캡이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다.

노란 꿈을 싣고 더 넓은 길을 나서다

이세형 동문은 전국 4개(논산, 대구, 광주, 이천터미널)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 성장 기반을 마련한 만큼 더 넓은 길을 나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이천에 대형 물류센터를 오픈한 것을 발판으로 수도권 공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는 237m로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길이므로 양이나 질 어디에서도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며 시간당 2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어 물량처리 효율도 혁신적으로 높았다는 게 이 동문의 설명이다. 그는 “중견 택배기업이 대기업에 밀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물류센터.”라면서 “지난 2004년 9월 청주 터미널 오픈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이천에 터미널을 오픈하면서 대기업과 경쟁을 위한 길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은 옐로우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시간은 금이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세 AMP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습득의 계기가 된 좋은 모임이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활동적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에게 있어 연세 AMP는 정신적인 멘토죠.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택배업이 저의 일이니만큼 연세 AMP활동으로 많은 동문과 교류하며 저를 새롭게 다졌으면 합니다.”



김태암

24년의 외길 집념, 한국통신산업의 별이 되다

— 통신업계에 새겨진 희망과 열정

지난 2004년 씨씨엠프라자가 공식출범과 동시에, 출범 첫해에 18만 이동통신가입자를 유치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이후 2006년 28만 가입자 유치에 이어서 지난해 50만 가입자와 1,500억 원의 매출신장을 이루었다. 이는 씨씨엠프라자의 대표이사인 김태암 동문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사업을 하면서 기업인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기업의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남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맞추지 않고 세상을 그의 신념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했다.

한발 앞서 달린 (주)씨씨엠프라자

(주)씨씨엠프라자는 1987년 무선호출기 사업을 시작으로, KT의 인터넷서비스, SKT·KTF·LGT의 휴대전화단말기, PDA 사업까지 사업 초창기에는 통신사업에 있어서 가장 밑단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과 단말기 중심의 통신사업이었다.

“부산에서 쌍용 부산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무렵 팩시밀리가 보급 되었죠. 그때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그 후 무선전화기가 나왔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무선호출기 사업을 시작했죠. 당시 부산에는 신발과 섬유 관련 산업이 호황기였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타 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동통신사업의 수익성도 매우 좋았어요. 이때 통신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특히 씨씨엠프라자는 국내 1호 별정통신사업자로, 지난해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LiITS(리츠) 브랜드를 런칭 하였다. LiITS는 인터넷서비스, 010 휴대전화, 070 인터넷전화, 쇼핑몰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글로벌 통신 기업으로 성장을 알리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기업, (주)씨씨엠프라자 LiITS로 도약을 준비

“지난 1월4일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CCM 2008 New Vision’ 선포식은 1,600여 명의 씨씨엠프라자 사업자와 전국의 씨씨엠프라자 사업자들이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어요. 지난해 말 씨씨엠프라자의 인터넷전화 ‘LiITS 070’ 브랜드가 런칭되고,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영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영업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LiITS(리츠)070은 씨씨엠프라자의 인터넷전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씨씨엠프라자 자체적으로 인터넷전화 자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미 자가 설비 구축이 완료되어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8년의 경우 인터넷전화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기존 LiITS 010 휴대전화 가입자 50만 명을 넘어 온 국민이 LiITS 070 서비스를 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많은 씨씨엠프라자 사업자와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동문은 강조했다.

어제와 내일은 환상일 뿐 오늘을 살아야 한다

통신사업에 대한 미래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기업의 비전을 생각하고 앞으로 향해 나갈 길을 모색한다는 김태암 동문(63기). 지난 2003년 차세대 통신사업팀을 사내에 구성하면서, 통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 시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욕심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연세대 AMP는 김 동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연세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은 각 계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경영이론과 응용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죠.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제 자신으로서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30년 전 통 속에서 수천 명에 해당하는 동문들이 배출된 만큼, 현실적으로는 동종, 이업종교류를 위한 기틀이 마련돼, 기업에게는 제휴 및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를 토대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생각이예요.”

지난해 제2의 창업을 선언으로 현실화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김 동문은 향후 MNO(가상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위상을 다지고, 최종 비전으로는 글로벌 통신 기업으로서 우뚝 서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김 동문에게 어제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내일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김 동문의 오늘은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만들며 내일을 희망의 비전으로 바꾸어 놓기에 앞으로 한국통신산업의 별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주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꿈꾸다

– 열정어린 궁지 속에서 찾는 희망

바이오제약업체인 (주)엔케이바이오는 인간중심을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제조업체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무지로 촉박했던 지난날부터 바이오혁명이라 불리며 바이오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류발전을 도모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았던 김영주 회장(엔케이바이오, 63기)의 꾸준한 의지와 열정은 NK(Natural Killer)세포를 이용해 국내최초 NK세포 자기유래 활성화 림프구 주사인 항암면역세포치료제 ‘NKM’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쾌거를 이뤄냈다.

엔케이바이오, NKM로 세계로 나아가자

(주)엔케이바이오의 회장인 김영주(63기) 동문은 200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해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의 새 장을 열었다. NK세포 및 T세포를 이용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NKM은 일본에서 시행했던 치료를 토대로 제품 개발의 위험성을 낮추고 연구기간도 단축시킨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로써 (주)엔케이바이오는 기업의 신뢰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냈다.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바이오산업이 저에게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선배가 관장은 사업이라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자료를 제게 내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려 관심을 두지 않고 책상 위에 오랫동안 놓아 두었죠. 그러던 어느날 한 번 읽게 되었어요. 골프 약속이 비로 취소되어 다음 스케줄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니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날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한 박스정도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자료를 하루 만에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 감기를 달고 다녔던 저로서는 이런 약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주)엔케이바이오 설립의 토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김 동문의 토대는 NK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면역세포주사제인 NKM 개발을 성공시켰다. NKM은 식약청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 기준 및 시험 방법, 2007년 6월 26일 안정성 및 유효성 검사를 완료하고 2007년 8월 7일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성공의 열쇠는 돈보다는 최선

“엔케이바이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만큼 회사의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죠. 우선 생명에 대한 보람을 얻는 일이니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매출은 그 다음이죠.”

현재 NKM으로 논현동 엔케이바이오 병원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초석을 다졌던 제주도 영리법인 메디컬리조트의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10일 단국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면서 항암면역세포치료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동맥경화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2008년에는 다양한 신약개발에 전념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 및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연대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앞으로 (주)엔케이바이오는 초일류 바이오 제약기업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김 동문은 밝혔다.

멈추기엔 아직도 열정이 많다

오늘도 김 동문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매일 빠짐없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며, 일에 대한 남다른 집념은 남을 돕는 기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는 김영주 동문에게 열정이 엿보인다.

“우리 엔케이바이오는 대학들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과 함께 인재배출에도 노력해요. 경영난으로 연구를 끝마치지 못한 신기술에 대해 지금을 지원함으로써 획기적인 기술연구를 완성하고 다양한 인재수용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중 하나로 암 환자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특히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엔케이바이오가 바이오제약기업의 영역을 넘어서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 동문이 있기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권병국

새로운 동창회의 기치(旗幟), 가족문화를 만들다

-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보람

권병국 동문은 총동창회의 새내기인 64기 동문이다. 현재 (주)경기도시개발과 양평 웨르빌 회장을 맡아 호텔과 건축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문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 연세 AMP 64기 회장직을 맡았다. 그 누구보다 64기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권병국 (64기 회장) 동문. 그를 통해 우리는 64기를 조명해 본다.

가족문화 공간, 개척의 선두자

양평 웨르빌 온천호텔이 제시하는 비전은 가족 중심 문화공간이다.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대단위 온천시설을 활용한 노천온천 등을 준비해 가족 휴양지로 각광을 받아온 웨르빌 온천호텔은 가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특급호텔의 면모를 자랑하며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새로운 호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차에서 웨르빌이라는 호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죠.”

특유의 사업 감각으로 웨르빌을 인수한 권 동문은 아낌없는 투자로 ‘호텔 웨르빌’을 완성하였다. 전국의 유명한 호텔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의 장점을 웨르빌에 접목시켰다. 측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권 동문의 사업적 감각은 그 누구도 따라 하기 힘든 일이었다. 권 동문은 사업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밀림은 바로 죽음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그는 호텔 사업에 가족문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성공의 원천, 아낌없는 투자

양평 웨르빌 온천호텔은 양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주변 관광지 및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역사 현장 교육 및 심신 단련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 거기에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권 동문의 아낌없는 투자에서 비롯됐다. 호텔외적으로 산책로를 만들었고 국내의 저명인사들이 제작에 참여한 조각공원이 그 예이다. 또 보이지 않는 건물 동선까지 직접 권 동문이 챙겨 공간구성과 인테리어에 힘썼다.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할지는 몰라도 가족들의 소중한 시간을 한 장의 멋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는 권 동문의 선심(善心)에서 커다란 그의 그릇을 발견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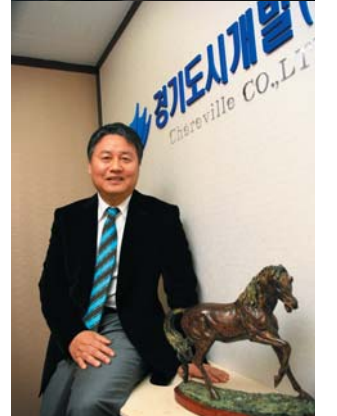
양평 웨르빌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권 동문의 투자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고의 인테리어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색다른 테마를 주제로 한 아파트와 2008년에 완공하는 양평 골프장 착공을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권 동문의 하루는 남달리 분주하다.

연세 AMP에서 노닐다

비쁜 시간에도 연세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수료할 만큼 권병국 동문은 연세 AMP사랑이 각별하다. 현재 64기 회장을 맡고 있는 권 동문은 “연세 AMP는 사회 각계각층의 최고 리더들 간의 만남의 장으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어. 동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꼭 가족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결집력과 각종 정보의 교류 및 친교의 장을 위해 ‘가족문화의 64기’를 만들고 싶어요. 이를 계기로 동문들은 연세 AMP의 구성원으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64기 회장인 권 동문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64기 동문들은 물론 총동창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모임이나 행사에 물질·정신적인 지원은 물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고의 동문’,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 투자하는 권 동문의 가치가 64기에 잘 어우러져 ‘가족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64기 회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사람을 얻는 전략적 칭찬의 기술

과거 우리 사회는 칭찬에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며 인맥 형성의 유효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제 아낌없이 칭찬하자.

전략적인 칭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칭찬은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대화의 유용한 기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칭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따라서 칭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말하는 칭찬의 기술을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자.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어느덧 세련되게 칭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칭찬은 구체적이고 확실할 필요가 있다.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직원에게 “잘했어.”라는 두루뭉술하고 평범한 칭찬 대신 “기획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설득력 있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구체적인 칭찬은 신뢰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사소한 칭찬거리를 찾아라 ●

대단한 성과에만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이유도 이렇듯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가끔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자.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진다.

간결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라 ●

듣기 좋은 말도 길어지면 짜증 나기 마련이다. 장황하고 복잡하게 이어지는 말 대신 진지하면서도 간결한 화법을 이용하자. 이는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을 뿐 아니라 듣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상대의 노력을 칭찬하라 ●

효과적으로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결과만 보고 칭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뛰어난 실적을 올리지 못했어도 일하는 과정에 쏟은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할 때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Trend

Trend Report	56	새로운 부동산 제도 꼼꼼 가이드, 제도를 알면 길이 보인다
Healthy Life	58	웃음의 건강학, 유머로 건강을 지켜라
Well-Being	62	색을 지닌 채소에서 건강을 읽는다
Leisure	64	댄스 스포츠에 도전한다, 'Shall We Dance'
Culture	68	예술에 마케팅을 접목시킨 것은 기업의 안목이다, 아트마케팅
Column	70	신년 소망을 기원하며
Travel 1	72	섬진강, 그곳에선 누구나 시인이 된다
Travel 2	76	골프집행부, 북해도로 단합대회를 가다
Travel 3	78	59기 향이 머무는 설악산의 추억
Travel 4	80	여행을 통해 상대를 알고 배려심을 배우다



새로운 부동산 제도 꼼꼼 가이드, 제도를 알면 길이 보인다



남들 따라 붐이라는 펀드에도 가입하고 CMA 계좌도 만들며 나름대로 재테크에 정성을 기울여왔지만, 왠지 부동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당신. 이제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구하는 자에게 길은 있는 법. 2008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글 _ 16기 홍용수 동문(재테크 코리아 회장,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양대 겸임교수, KBS 경제프로 MC, 재테크 특강 및 기고문 다수)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시대 개막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주택 중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단지와 수도권 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를 마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수요자들은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할 수 있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매제한기간이 건축기간만큼 길어지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고,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짧아지는 부담도 생기니 미리 대금 확보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우선 청약하려면 전입 서둘러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혜택을 받아 청약을 하려 생각했다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광고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청약자라면 서둘러 해당지역으로 전입해 주소를 옮겨 놓아야 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당초 100%였던 것이 30%로 축소됐다.

조세특례 아파트 시한 만료, 부부간 증여세 공제 확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 만료됐다. 따라서 이 기간 중 공급된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을 최초 분양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2주택자인 경우 특례에 따라 그 이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2007년 말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증여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되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

에 증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폭이 확대되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눠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하지만 이 혜택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 된다.

재건축 연한은 늘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은 전환 의무화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신 이후 새로운 제도 개편이 예상되지만, 일단 재건축 사업추진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의무화되면서 투자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Tip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월별 체크포인트

- 1월 -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거주기간 1년 이상 제한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설
- 주공과 수도권 공공기관 공급 주택 후분양제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비교세 혜택 폐지
- 배우자간 증여 공제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 2월 - 외국인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 허가분야 거래 가능
- 4월 -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에게 저야 할 손해배상 책임 보장반기 내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의무화
-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 8월 -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 및 지역 우선 공급



웃음의 건강학, 유머로 건강을 지켜라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유머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웰빙의 바람을 타고 건강을 지키는 키워드로 유머가 떠오른다.

글 _ 51기 최중언 동문(연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요즘 우리는 ‘웰빙(Well-being)’이란 단어를 유행어 처럼 사용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관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우리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잘못되면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몸에 좋다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많은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애쓴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산다.

하지만 사람 대부분 웃으며 사는 습관이 다른 무엇보다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건강의 시대 유머로 건강을 찾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자극받는다. 시상하부는 콩팥부근에 위치한 부신을 자극하여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파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코티솔등)을 분비시킨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해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심장병, 위궤양, 우울증 등을 유발하거나 기존에 지닌 병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천적이 웃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 버크(Lee Berk)교수는 ‘웃음과 면역체계’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웃음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증명하였다.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코미디 비디오를 보게한 후 혈액을 채취하여 조사하였더니 혈액 내 감마인터페론이 웃고 난 후 200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마인터페론은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술, 담배, 커피, 약물(신경안정제)등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기호품이나 약물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보다는 심장박동, 혈압을 높이고, 위장장애, 호흡장애, 신경쇠약, 우울증을 악화시켜 오히려 스트레스에 독으로 작용하고 면역기능을 떨어트린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보다 약 2.5배 감기에 걸리기 쉽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막는 항체도 약화된다.

웃음의 효능, 웃으면 건강이 온다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一笑一少), 웃는 집에는 만복이 온다(笑門萬福來)’는 선현들의 말처럼 웃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준다. 웃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해소책이자 예방주사로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무형의 보약이다. 스탠포드대의 윌리엄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생리효과는 엔도르핀, 엔케팔린 같은 자연 진통제 생성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과 신경통, 염증을 호전하고 상체근육의 운동효과, 신체 전기관의 긴장 완화를 돕는다.’고 발표하였다.

삶의 중요한 미덕, 웃음 의미의 재발견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웃음이 사라진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이 출생하고 생후 2~3개월 후부터 웃기 시작하여 급속히 웃음의 횟수가 늘어나 보통 6세가 되면 하루 300회 이상 웃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회 정도로 웃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하루 15회 웃으면 2일 간의 수명 연장을 가져온다고 한다. 몸에 좋다면 굶벙이도 삶아 먹는 열성을 보이면서도 하루 15회 크게 웃는 데는 왜 인색한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은 걱정, 고민, 분노, 고통, 위협, 비평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웃음을 미숙한 일로 여겨왔고, 자주 웃으면 싱겁고 헤픈 사람으로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사, 의사, 검사, 변호사, 고위직 임원, 부모 등은 심각한 얼굴을 해야 권위가 선다는 고정관념도 있었을 것이다. 봉건적 유교사상이나, 선비사상에서 기인했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사상도 예수나 바울이 웃음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내용이 더 부각되고,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가무를 즐기고 해학이 발달한 민족이다. 특히 서민들은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너털웃음으로 극복했다. 탈춤,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 장승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민족이 웃음을 삶의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키워드, 유쾌한 유머

유머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뿐 아니라 경영도 성공적으로 이끈다. 사람은 함께 웃을 때 가까워지고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게 된다. 즐거운 직장 분위

기는 부하직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미국의 Southwest airline(SWA)는 유머경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1971년 3대의 비행기로 텍사스 내 3개 소도시에 출항을 시작했으나 현재 52개 도시에 취항하는 미국 4위 항공사로 성장했다. 그간에 미국 내 130개 항공사가 파산했지만 이 항공사는 25년간 연속 흑자, 년 간 1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 원동력이 유머경영이라고 한다. 직원들이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로 일한 결과라고 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링컨,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등은 업적이 뛰어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유머가 뛰어난다는 것이다. 유머가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유머는 건강을 만들고, 건강은 다시 유머를 생산한다.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유머와 여유는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 그 순환 속에 빠져 들어 가면 우리는 건강과 성공의 세상을 꿈꾸게 된다.

Tip 유머의 효과

01 _ 사교적이게 되며 일상생활이 즐겁다

유머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교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즐거워진다. 라디오, 신문, 잡지, 서적 등에서 찾는 유머를 메모하거나 암기하고 주변사람들과 교환하면서 어울리면 그 이상 즐거울 수가 없다.

02 _ 남을 배려하게 된다

웃음은 전염 또는 감염되어 건강이 좋아진다. 남의 유머를 귀 기울여 듣고 즐겁게 웃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남이 유머를 할 때 어디 한번 웃거나 안 웃거나 보자며 뚝뚝한 표정을 짓거나 무반응한 사람은 삶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나이 들어 외롭게 살다가,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기 쉽다.

03 _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다

요즘은 웃음 치료법이 병원에서 도입되어 암환자 치료에까지 응용된다. 실제 많은 환자가 효과를 보았다. 외국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고, 필자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도 효과를 본 사례가 여럿이었다.

색을 지닌 채소에서

바야흐로 웰빙 전성시대다. '몸에 좋고 건강에 유익하면서 생활까지 풍요롭게 만든다.'는 정보가 넘친다. 특히 먹거리에 부는 웰빙 바람은 그동안 이어온 식습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 먹던 풀뿌리가 육류보다 대접받는 시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 입과 눈까지 즐겁게 하니 밥상의 반란은 당연하지 않을까?

자료 _ 한영실(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소 교수)

건강을 읽는다



각종 채소는 고유의 색상을 담고 있다. 하얀 색에서부터 녹색, 붉은 색 등 각각이 지니는 고유의 색상에는 건강의 의미를 담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그 비밀을 파헤쳐 본다.

WHITE 무, 양배추 등 백색 채소와 감자 등 담황색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안토시아닌 색소가 담겨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중년 여성의 폐경 초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김치나 각종 반찬으로 흔히 섭취하는 무에는 전분,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시키는 각종 소화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못지않은 항암 효과를 자랑하는 채소다. 양배추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 인돌, 디티올리온이라는 화합물은 발암물질 등 독소를 파괴하여 암을 예방한다. 양배추는 위염, 위궤양 환자들의 치료식으로 사용된다.

TIP ◎ 강화순무 ◎ 강화순무는 달면서도 겨자향의 인삼 맛이 나며 한편으로는 배추뿌리의 진한 향을 느끼게 하는 맛을 지니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맛이 달고 오장에 이로우며, 소화를 돕고 종기를 치료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고 갈증해소 작용을 한다.'고 전해진다.

GREEN 채소의 녹색은 엽록소 색소 때문이다. 엽록소는 상처를 치료하고 세포를 재생시킬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또 혈액 속 유해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으로 노화를 방지한다. 시금치는 예로부터 해독작용을 인정받아 왔다. <본초강목>에서 '시금치는 혈액을 통하게 하고 막힌 것을 열어준다.'고 나와 있다. 시금치 100g당 카로틴이 2500~6700μg 들어 있고, 칼슘 36~42mg, 철 2.5~4.2mg 등 무기질도 풍부하다.

TIP ◎ 썩는 능력 ◎ 향긋한 향이 인상적인 썩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은 채소다. 썩에 들어 있는 칼슘과 철분은 쌀밥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영양의 균형을 생각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RED & PURPLE 붉은색 채소에는 리코펜,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들어 있다. 항산화작용이 뛰어나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 감소, 혈액순환개선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과일로 오해받곤 하는 토마토는 비타민 A1·B1·B2·C 등이 골고루 들어 있다. 가지의 보랏빛을 내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동맥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을 방지해 준다. 또 가지의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이라는 물질은 경련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TIP ◎ 지중해 건강식, 토마토 ◎ 장수국가로 알려진 그리스 인들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쌀과 함께 넣어 밥으로 먹었다. 토마토는 생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통째 먹는 것보다는 잘게 썰거나 다지거나 으개서 먹는 것이 영양의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한다.

YELLOW 과일과 채소에 나타나는 노란색, 황적색의 정체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로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산화방지과 항암효과가 뛰어나 미국의 어느 연구에서 폐암을 가장 잘 예방하는 식품으로 적황색 채소인 고구마, 호박, 당근이 뽑히기도 했다. 당근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쉽게 바뀌는 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시력을 좌우하는 간장에 영양을 공급에 시력보호에 좋다. 아맹증 예방과 발육촉진, 피부보호와 항암효과까지 있다. 호박도 칼륨이 많아 이뇨작용이 뛰어나다. 늙은 호박은 산후 회복에 많이 쓰이며 누런 호박은 카로틴이 많으며 비타민 C와 B2도 풍부하다.

TIP ◎ 호박 종류에 따른 조리법 ◎ 짙은 녹색의 마디호박이나 옅은 녹색의 조선호박은 주로 볶거나,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늙은 호박은 떡이나 죽, 엿으로, 파랑고 빨간 밤호박과 약호박은 통째로 찌서 간식으로 먹는다.

BLACK '블랙푸드'의 열풍이 불면서 천대받던 검은색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물성 재료의 검은색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내는 것으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검정콩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아이소플라본이 다량 들어 있다. 인체 내에서는 에스트로젠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댄스 스포츠에 도전한다, 'Shall We Dance'

과거 댄스는 '춤바람' 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요즘은 반대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적당히 흔들지(?) 못하면 '몸치' 라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댄스 스포츠는 연령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시킨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고 오래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벼운 움직임으로 오락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이다.

자료 _ 박경환 (사)한국체육진흥회 댄스스포츠교실 지도교수(www.jboramae.com)
윤정덕 · STEP114 대표(www.step114.com)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볼룸댄스

볼룸댄스(Ballroom Dance)란 볼룸(Ballroom, 큰방) + 댄스(Dance, 춤), 즉 충분히 넓은 장소에서 추는 춤을 의미한다. 1980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추진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볼룸댄스 대신 댄스스포츠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댄스스포츠(Dancesport)란 용어가 탄생했다.

모던댄스와 라틴댄스로 구분

댄스 스포츠의 종류는 크게 모던댄스와 라틴댄스 두 종류로 나뉘는데 모던댄스는 1924년에 ISTD(영국왕실무도교사협회) 분과위원회에서 5종목을 정립시켰고, 라틴댄스는 라틴계 나라들, 즉 쿠바, 브라질 등의 댄스로 1974년에 ISTD에서 경기 5종목을 정립시켰다. 모던댄스 5종목은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빈 왈츠(Viennese Waltz), 폭스트롯(Fox Trot)이고, 라틴댄스 5종목은 자이브(Jive), 삼바(Samba), 차차차(Cha Cha Cha), 룸바(Rumba), 파소도블레(Paso Doble)이다.

볼룸댄스와 프리댄스로도 불러

모던댄스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특징으로 확실한 홀드(남녀가 춤을 추기 위해 취하는 기본자세)를 취해야 하는 룰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던댄스를 '룰' 댄스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던댄스는 춤의 역사를 말할 때의 현대무용과는 분명히 다르다. 쉽게 생각해서 모던댄스는 비(非)라틴계 댄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라틴댄스는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쪽을 향하여 춤을 추어도 상관없으며, 홀드의 방법도 상당히 자유로워 한 손을 잡기도 하고 양손을 다 놓고 추기도 하는 자유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라틴댄스를 프리댄스(Free D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댄스 스포츠의 운동 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댄스 스포츠는 건강을 목적으로 한 신체단련 운동으로서 그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만도 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1시간 당 소모되는 에너지가 '0.021kcal × 60분 × 60kg = 76kcal' 인데 반해 1시간 동안 춤을 추면 '0.168kcal × 60분 × 60kg = 605kcal' 로 약 8배를 더 소모하게 된다. 참고로 529kcal(605kcal - 76kcal)는 성인 여자가 하루에 섭취하는 2,000kcal 정도 열량 중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댄스 스포츠가 체중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체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아름다움을 가져오며, 아름다운 음악과 운동의 조화는 마음을 안정시켜 편안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몸과 정신의 건강에 아주 좋다.

다양한 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왈츠와 빈 왈츠 | 왈츠란 독일어로 '파도치듯 떠오르고 내려간다.'는 뜻. 1780년 경 남부 독일의 농부들이 추었던 '렌들러'라는 민속춤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 초 유럽 사교계에 소개되었을 때는 빠르게 우회전과 좌회전을 하는 춤이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리듬에 영향을 받은 왈츠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그 하나는 속도가 느린 '모던 왈츠'고, 다른 하나는 빠른 속도로 추는 '빈 왈츠'다. 왈츠는 기본적으로 상승(rise)과 하강



(fall)을 강조하는 기품 있고 우아한 춤이다.

폭스트롯과 퀵스텝 | 미국 뉴욕에서 1912년 경 버드 빌 댄서(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배우)인 해리 폭스(Harry Fox)라는 사람이 창안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이 춤은 댄스 애호가들의 찬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 춤은 영국에서 더욱 발전해 우아하고도 환상적인 폭스트롯이란 춤과 경쾌하고도 빠른 퀵스텝이란 춤으로 나뉘어졌다.

탱고 | 18세기 말 아르헨티나 동해안의 라 프라토 팜파스 지방의 원주민인 가우초(Gauchos)족 기마병들이 술집에서 실 때 들려오는 리듬에 맞춰 춘 춤이라 한다. 초기의 탱고는 오늘날의 것과는 아주 다르며 현재도 아르헨티나 탱고는 독특한 특성을 지녀 라틴 아메리카 댄스에 가깝다. 이 춤이 영국에 도입되면서 더욱 세련된 춤으로 발전했다. 낭만적이며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춤으로 누구에게나 매혹적인 레퍼토리다.

룸바 | 룸바는 16세기 경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데려온 흑인들의 리듬으로 적어도 1백년 이상 쿠바에서

추어졌다. 1930년 경 영국에서 더욱 발전시켜 원래의 춤과는 아주 다른 춤으로 변했다. 룸바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댄스의 정수로 꼽힌다. 룸바는 매우 환상적인 리듬과 동작을 가졌고 여성댄서가 여성다운 춤사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춤이다.

차차차 | 이 춤은 원래 쿠바에서 유래했고 맘보가 그 선구자다. 봉고 드럼이나 마라카스를 두드리는 음악 소리 자체가 차차차로 들린다. 이 춤은 라틴 아메리카 댄스 중에서도 가장 인기다.

자이브 | 1927년 경 뉴욕의 하렘(Harlem)이란 흑인 거주지에서 재즈(Jazz) 음악의 일종인 스윙(Swing) 리듬에 맞춰 처음으로 추어진 춤이다. 1936년 경 전 미국을 휩쓸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2차 세계 대전 중 GI(미국 직업 군인)들에 의해 유럽에 퍼졌고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놀랄 만한 인기가 계속됐다.

삼바 | 삼바 춤은 강렬하고 독특한 율동을 지닌 생동감 넘치는 춤이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었으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에 의해 브라

질 북부의 바히아 지방으로 보급됐고 마침내 브라질의 대표적인 춤이 되었다. 처음으로 서양인들의 시선을 끈 것은 연례행사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에서였다. 지금도 브라질에서는 삼바학교가 번창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삼바리듬과 기본동작을 발전시키고 있다.

파소도블레 | 이 춤은 스페인에서 유래했다. 기본 스텝은 행진곡 형식이며 투우를 묘사한 춤이다. 남자는 투우사를 나타내며 여자는 투우와 망토를 나타낸다. 유럽의 남쪽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에서 인기 있는 춤이다. 스페인어의 파소(paso)는 스텝(step)이라는 의미이며 도블(doble)은 더블(double)이라는 의미이다. 즉 '두 배의 걸음'이라는 뜻이다.

멋진 댄스를 위한 에티켓

- 춤 출 때는 몸을 깨끗이 해야 하며 특히 체취나 구취에 신경 쓴다. 술, 마늘, 김치 같은 음식은 삼간다.
-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정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여자가 바지나 타이트스커트를 입는 것은 실례다.
- 신발은 무도화(바닥을 가죽으로 만든)를 신어야 한다.
- 춤은 남자가 먼저 예의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씨로 신청(Propose)해야 한다.
- 여자가 남자의 춤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답례가 분

명해야 한다. 사절할 경우에는 공손한 말투로 합당한 이유를 말해 남자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 여자가 춤을 응낙하였을 때는 춤추는 장소까지 에스코트(Escort)하며 춤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까지 에스코트하고 파트너가 되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 부부 또는 동행이 있는 여자에게는 먼저 남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동행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춤을 출 경우에는 직접 청해도 된다.
- 파트너와 동행했을 경우 첫 곡과 마지막 곡은 반드시 파트너와 추는 것이 예절이다.
- 초청자가 있는 파티일 때는 여자는 남자주인, 남자는 여자주인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춤을 출 때 파트너가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삼간다.
- 춤을 출 때는 반드시 시계의 반대 방향인 L.O.D.(Line of Dance)로 진행해야 하며 중앙선(Center Line)을 넘거나, 다른 사람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춤에서는 남자가 리더(Leader)이고 여자는 팔로워(Follower)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리드하려고 하면 안 된다.
- 한 커플(Couple)과 계속해서 추기를 원한다면 다른 장소에 가서 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도회란 여러 사람의 사교와 교제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Tip 우리나라의 사교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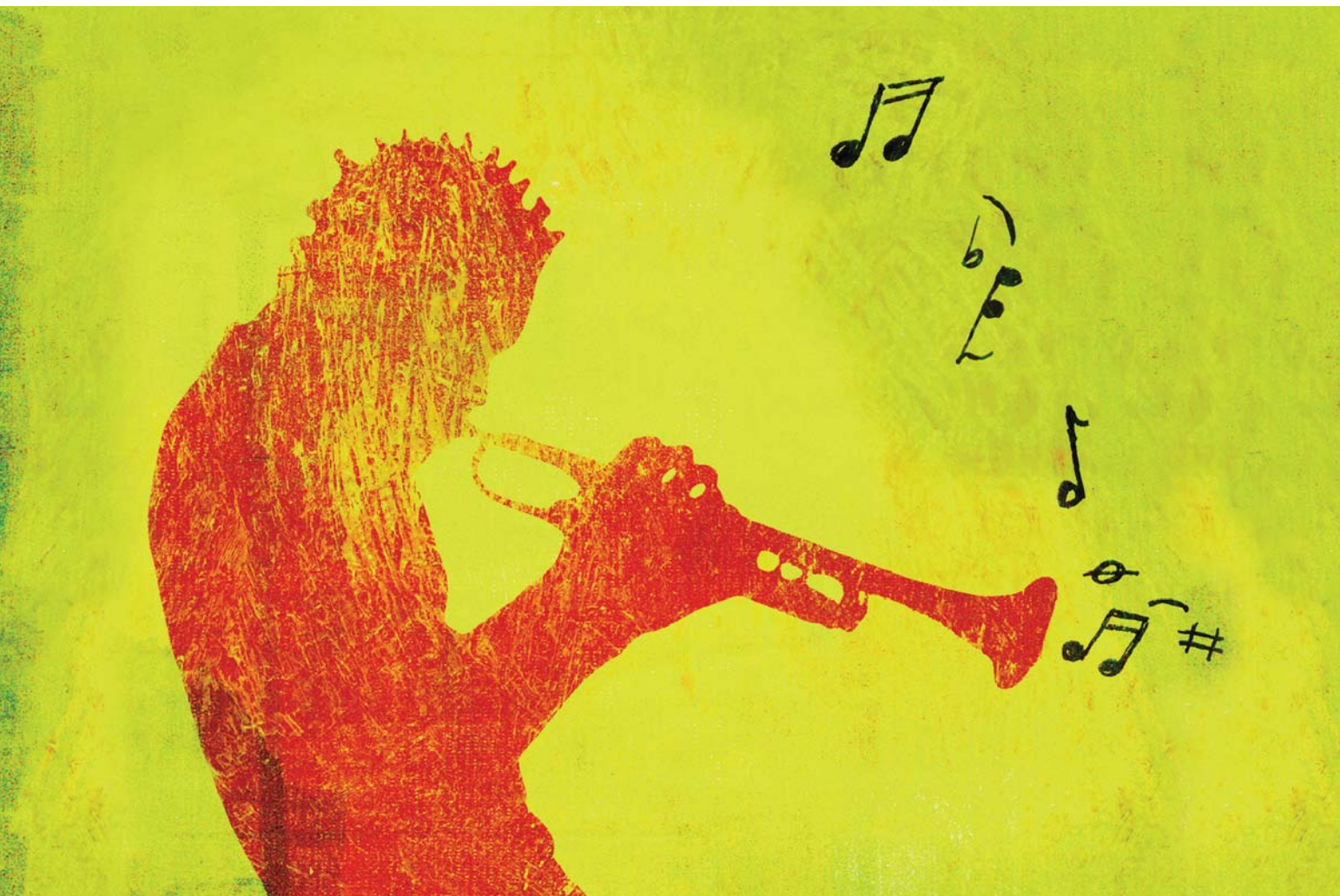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실제 보편적으로 추어지는 춤은 블루스와 트롯 그리고 지르빅으로 나뉜다. 블루스(blues)는 1913년 경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전 세계에 유행한 춤으로 느린 템포의 음악에 맞춰 춤다하여 유럽에서는 슬로우 리듬댄스라고도 부른다. 간단한 스텝으로 파티나 사교장에서 가장 많이 즐겨 추는 춤의 하나이며 사교춤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춤이다. 트롯(trot)은 지르빅보다 느리지만 블루스보다는 빠른 곡에 맞춰 추는데 스텝이 블루스와 유사해 블루스를 배우고 나면 쉽게 배울 수 있다. 블루스나 트롯이 흥된 상태에서 추는 춤이라면 지르빅(jitterbug)은 남녀가 떨어져서 자유롭게 추는 춤이다. 이 춤은 기본동작을 익힌 후 숙달하여 응용하는 과정이 오히려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기본동작에서의 응용동작이 다양하다.



예술에 마케팅을 접목시킨 것은 기업의 안목이다

지난해,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아트마케팅의 부각과 함께 국내의 기업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냉소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지언정 새로운 기류는 미세하지만 확고했다. 기업의 이미지전, 매출 실적이건 미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주목할 만한 현상. 마케팅이 아니라 예술에, 예술보다는 꿈에, 혹은 희망에 앞서는 기업들의 가치가 돋보인다. 진정한 아트마케팅의 가치는 이런 기업가들의 합리적인 예술적 안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아트마케팅(Art Marketing)



하나은행 본점

쌘지의 앤디 워홀 티셔츠

부산 롯데

골공도

아트마케팅,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키워드

마케팅의 전략으로 미술과 제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마케팅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면서 이제 아트까지 접근하고 있다. 아트 마케팅(Art Marketing)이란 예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과 영업실적에 성장을 도모하는 고도의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가령 기업이 미술작품을 지원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제품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트 마케팅인 것이다. 최근 불고 있는 기업의 아트 마케팅 바람을 살펴보자.

하나은행 | 매년 하나은행 앞 본사 건물외관을 설치 미술로 승화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은행을 홍보하고 있다. 작년에는 김혁설치미술가) 씨의 작품인 「하나은행통장」 이미지로 건물 포장을 하고 2007년은 모래 시계 모양의 설치 미술로 건물 외관을 포장하였다. 아울러 백남준의 하나은행 로고 모양의 비디오 아트도 여의도점에 설치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패션업체 쌘지 | 음력 3월3일인 삼짇날을 '쌘짓날'로 정하고, 전국 쌘지매장에서 삼짇날 행운을 기원하는 노란 나비가 그려진 지갑 가방, 노트, 북마크를 선보였다. 쌘지는 이미 지난해에 팝아티스트 낸시 랭을 광고 모델 겸 예술 감독으로 영입한데 이어 1월에는 쌘지 스포츠를 통해 '낸시 랭' 라인을 출시, 낸시 랭의 대표적인 평면 작품인 '터부 요기니' 시리즈를 의류에 접목시킨 바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팝아트 선구자 앤디워홀 작품과 만화가 이현씨 작품 등을 자사 의류에 이미지 프린트하여 마케팅의 현격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백화점업계 | 롯데백화점은 명품관 에비뉴엘 안에 롯데 갤러리를 신선했고, 신세계 백화점도 본관 갤러리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 모든 백화점에서 갤러리를 점내에 신설하여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미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스코의 청암재단 | 포스코는 기존의 장학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철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조각 작품에 대한 미술 공모 '포스코 스틸아트' 공모를 통해 아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철강 회사인 포스코는 매년 철을 소재로 조각 공모를 하고 있고 작품을 일부 매입해 작품전을 열어 문화 감성적인 인지도를 꾸준히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삼성건설 레미안 | 지난해 10월 일원동 주택문화관을 작가 한점마의 손을 빌려 레미안 갤러리로 바꾸고 설치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외에도 유명 작가들에게 새 상품의 디자인을 직접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2003년 '루이비통'이 현대 미술의 거장인 다카시 무라카미와 손을 잡고, 그가 그린 그림으로 루이비통 핸드백을 디자인하고, 루이비통 로고인 'LV'를 가지고 무라카미가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글_ 58기 이철희 동문
(주)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대표
1993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2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성조각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현재 성신여대, 한양대학교 출강





신년 소망을 기원하며

2008년이 밝았다. 괴롭고 쓰라렸던 모든 일은 망년회와 함께 툭툭 털어버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는다. 제각기 1년의 설계를 하는 새 아침, 신년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속에서 올해 1년의 꿈을 그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답게 손을 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함께 인사가 바빠 오고 간다.

지금 거리에는 신년의 희망이 사람들의 발길을 분주하게 하고, 상가마다 복적대는 인파로 부산하다.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비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쁜 의정활동에 쫓겨 어떻게 지내왔는지조차 모르게 달려온 지난 한 해였지만, 대부분 사람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살기가 힘들었던 한 해였기에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온 모든 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검은 재앙으로 고통받는 서해바다를 살리자

지난 2007년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어 충격을 준 한 해이기도 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상당수가 지구 온난화

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자연유산 가운데는 바다의 산호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런 와중에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에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이 된 삼성물산 소속 예인선 삼성T-3호, 삼성T-5호 2척과 해상 크레인선은 사고 80여분 전 기상 악화로 항로를 이탈하여 12월 7일 오전 5시50분경부터 S자 모양의 항적을 기록하며 유조선 쪽으로 밀려가 충돌함으로써 사상최악의 환경재앙이 일어났다.

기름유출 사고는 다량의 기름이 제한된 해역에 한꺼번에 배출됨으로써 각종 생산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우리나라 연안의 기름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995년 7월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원유 유출 사고는 전 국민에게 해양기름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기도 했다. 이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시프린스호 때 유출량(5,035KL)의 2.5배가 되는 1만 2,547KL의 엄청난 분량이다.

기름은 바다에 유출되면 바람이나 조류를 타고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확산되는 기름은 해수표면에 퍼져 해류, 조석,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한다. 그중 용해 성분은 해수로 녹아들고 휘발 성분은 대기중으로 증발한다. 휘발 성분이 날아가고 점성이 높아진 기름은 50~8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는 갈색의 끈적끈적한 에멀전을 형성하고, 이것은 방제작업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기름은 기름 분해 능력을 가진 박테리아나 균류들에 의해 일부 분해되기도 하는데 독성을 지닌 방향족탄화수소들은 거의 분해되지 않고 해수나 퇴적물 속에 잔류한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하게 된다.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름막(오일펜스)을 설치한 후, 물에 퍼진 기름을 회수기를 이용하여 수거하거나, 현장에서 태워버리기도 한다. 흡착제 또는 흡착포를 이용하여 기름을 걷어내거나 유고형제를 뿌린 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제장비와 전문 기술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양생물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해양포유류, 바닷새, 해안서식 동·식물들은 기름이 묻거나 기름에 함유된 유독성분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해수 중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일시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어란, 치어 등도 생활에 장애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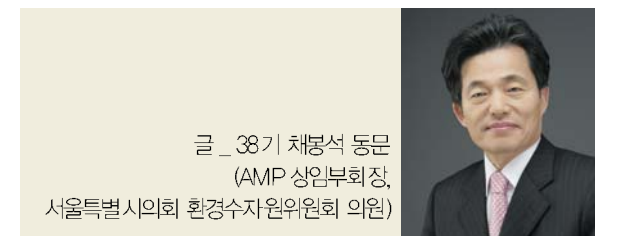
경제와 환경 되살아나는 기쁜 신년이 되기를

지금 태안 앞바다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 군경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신년의 시무식 모임조차 포기하고 기름 제거 작업에 동참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일 신문과 TV에서 보듯이,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기름띠가 점점 풀어나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고발생 이후 처음으로 태안군 천리포 해안에 흰뺨검둥오리떼가 찾아와 유역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아침이 밝았다. 이제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신년에는 모두가 보다 큰 소망을 이루고 '경제·환경'이 되살아나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경제성장면에서 수출과 국민소득이 일자리와 함께 실감나도록 늘어났으면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빈부차이를 심화시키고 소외와 불만을 늘리는 일이 없는 신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글_ 38기 채봉석 동문
(AMP 상임부회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섬진강, 그곳에선 누구나 시인이 된다

강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시인이 된다.

굽이굽이 깊은 산골짜기를 돌아 넓은 세상에 다다를 때까지
유유히 흐르다 때론 급물살을 일으키는 강물을 보며 사람들은 감상에 젖는다.

강과 함께 펼쳐지는 자연의 풍경은 더없이 여유롭다.

강 길을 따라 걸어보자.

글·사진 _ 이흥재 | 여행작가, 미술사학자

가족과 함께 한국의 강 길을 따라 걷는다. 이번에 오른 여행길은 섬진강, 이 보다 더 감상적일 수 없을 만큼 주변과 어울린 풍광과 물의 흐름이 한 폭의 소박한 수채화 같다.

섬진강을 따라가면 생각나는 시인이 있고, 영화도 있고, 옛 이야기도 있다. 잠시 강가의 소나무 숲이 내는 소리에 몸을 휴식을 취한다. 서서히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섬진강하면 김용택 시인이 떠오른다. 섬진강변 덕치 진메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도 덕치초등학교 담임선생이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는 진유빈, 이선영, 임채운 3명 학생이 전부였다. 교사 대 학생 수로 보면 대학교수보다 대상 학생이 적다. 자기 고향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십리 정도 떨어진 모교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써 온 '섬진강'을 비롯한 주옥같은 시들은 많은 사람에게 고향을 생각나게 하면서 섬진강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해 주고 있다.

순창농고를 졸업한 학력에 초등학교 교사인 시인의 이력은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 대학이나 그럴 듯한 직장에 있는 누구보다 주옥같은 시를 왕성하게 쓰고 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섬진강이 준 기(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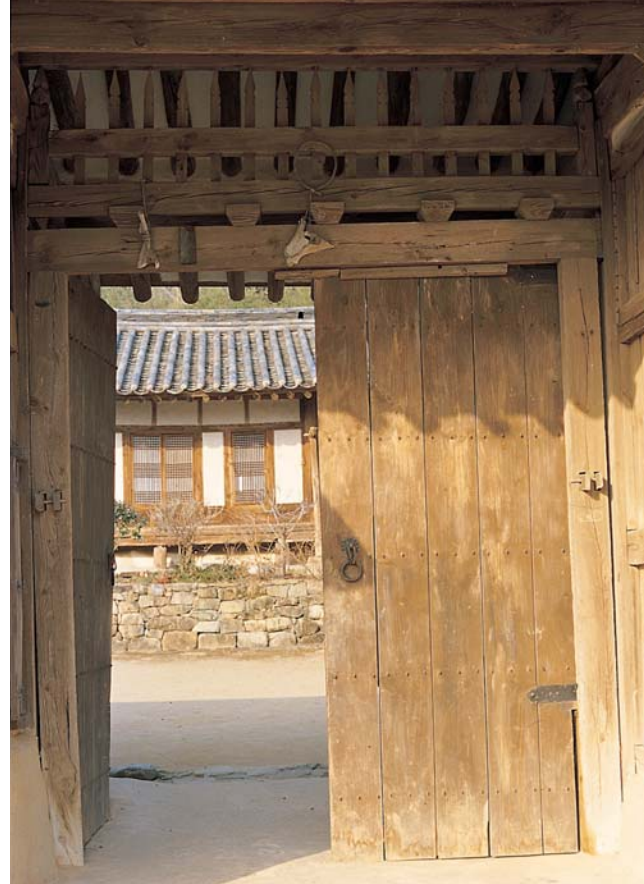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구담마을

진메마을을 따라 쪽 걸어가면 천담마을과 구담마을이 나온다. 1998년 영화 <아름다운 시절>을 촬영한 곳이다.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은 아버지 세대의 고단한 삶을 아이들 눈을 통해 바라본 작품이다. 이 영화는 그 해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었고, 동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촬영당시 전봇대가 없는 마을로 동네 방앗간과 정자나무 숲은 지금도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대변하기에 손색이 없다. 매화와 산벚꽃 필 때, 녹음이 짙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올 때, 빨간 먹감이 주저리 익어 가며 물안개 피어오를 때, 하얗게 새로운 세계로 변신하는 겨울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자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요강바위 설화의 '장구목'

천담마을에서 강변을 따라 휘파람 불며 내려가면 드라마 「히준」, 영화 「춘향전」과 「아름다운 시절」을 촬영한 장구목이 나온다. 용골산 밑 장구목에 가면 슬한 세월 강물에 씻겨 가운데가 움푹 파인 '요강바위'가 나온다. 높이가 2m, 폭이 3m 정도이고 무게가 15톤이나 된다. 한국전쟁 때(그곳에 사는 어른들은 지금도 '인공(인민공화국 준말)' 때라고 부른다), 마을 주민 중에는 이 바위 속에 몸을 숨겨 화를 모면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 때 이 바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석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도난을 당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 찾아와 제자리에 앉아 내룡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준다. 장구목이라는 이름은 우리 전통 악기 장구에서 가죽을 떼어낸 것처럼 넓은 강이 이 부근에서 훌쩍하게 좁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면 넓어진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아들 낳기를 원하는 여자가 이 바위에 앉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호랑이 뼈를 걸어 놓은 '운조루' 솟을대문

구례에서 하동포구로 흘러가는 섬진강을 따라 가다보면 구계군 토지면 오미리에 운조루가 있다. 운조루는 우리나라 3대 명당 터 중의 하나인 호남의 대표적인 양반집이다. 운조루(雲鳥樓)는 1776년 무관 유이주가 지은 집의 사랑채인데, 지금은 집 전체를 운조루라 한다. 운조루의 옛 모습이 「전라구례오미동가도」라는 그림으로 내려올 정도로 건축적 구성이 훌륭하다. 솟을대문에 호랑이 뼈를 매달아 두어 집안에 악귀나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즉, 호축삼재(虎逐三災)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행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포인트 중의 하나가 이 호랑이 뼈다. 운조루 앞 환동에는 박부자 집터로 마치 둥그런 금가락지 모양의 '금환락지' 처럼 보이도록 돌담을 쌓고 대숲을 만들어 놓았다. 명당의 의미보다는 오후 역광으로 보이는 오봉산의 선들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처럼 들린다.

하동포구 80리와 솔바람 소리

쌍계사 입구에서 섬진강 하구까지 '하동포구 80리' 라는 노래 가사가 만들어질 정도이다. 대숲과 흰 모래밭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유장한 섬진강의 그림이 그려진다. 옛날에는 수백 척의 어선이 정박했었고, 강을 이용해 남원까지 해산물과 물산을 운반했었다고 한다. 지금은 조그만 소형어선 몇 척이 그래도 옛 영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섬진교 아래 하동을 광평리에 널따란 솔숲이 있다. 조선 영조 21년(1745년)에 당시 부사 전천상이 방풍림으로 조성했다 한다. 8천여 평 강변에 300여 년생 소나무가 700여 그루 자라고 있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이룬다. 솔숲 벤치에 앉아 석양의 긴 소나무 그림자를 보며 새해의 설계를 하면서 지리산과 섬진강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아보면 어떨까?

골프집행부, 북해도로 단합대회를 가다

2007년 10월 8일 원장배 골프대회를 앞두고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았다. 연세 AMP 총동창회 골프회 8기 임원으로 처음 들어가 집행부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고는 그동안 다 차려 놓은 상에서 밥만 먹으며 투덜대기만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007년 8월 17일, 연일 35~36°C를 오르내리는 찌는 듯한 폭염의 날씨 속에서 김영택 골프회 회장님 내외분과 원제철 사무총장, 김윤희 골프 총무국장, 김명용 총무이사 등 16명이 함께 한 가운데 <10월 8일 원장배 골프대회 발족식 및 집행부 단합대회>라는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첫째날

북해도 삿뽀로의 신치도세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한낮인 12시 30분. 약간의 비가 오긴 했지만 불과 3시간 전에 출발한 한국의 폭염과는 달리 이곳의 날씨는 쌀쌀하다 못해 긴팔 옷을 입는가 하면 심지어는 레인코트 까지 꺼내 입는 분들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의 날씨도 꽤나 더웠다고 한다. 역시 날씨도 우리를 알아보는가 보다.

공항에서 골장 간곳이 삿뽀로에서 약40분 떨어져있는 "삿뽀로 카타히로시마 골프클럽" 커다란 리조트였지만 건물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고 클럽하우스와 골퍼장만 운영하고 있었다. 골퍼장은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천혜의 골퍼장 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인공의 미를 가미한 것 보다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높은 하늘에는 매가 날아다니고 낮은 하늘에는 일본의 국조인 까마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날아다닌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북해도에는 붉은여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눈으로 골퍼장을 돌아다니는 야생 붉은여우를 보았다는 사실이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장면에 잠시

났을 잃었던 나는,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여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샌가 내 눈 앞에서 오하려 내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쳐다 보는 여우를 잠시 멍한 상태에서 바라보던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때다 싶어 카트로 달려가서 카메라를 꺼내들고 예쁘게 생긴 붉은여우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하지만 허둥대며 사진을 찍으려는 나를 비웃거나 하듯이 붉은 여우는 오염한 자세를 뽐내며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부러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북해도에서 오기나와 까지의 냉대기후에서 이열대기후까지, 일제강점기에 이주시게 하나까지 우리나라의 목재를 베어다 쓴 일본. 그런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어디를 가나 무성한 숲과 자연의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많은 야생동물들이 현존하고 있었다. 더더욱 부러운 것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골퍼장에는 우리 팀 외에는 다른 골퍼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것...휴~~ 어쨌든 첫날은 부러움 속에서 삿뽀로 시내에 위치한 타워 프린스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둘째날

오전7시에 호텔식으로 조식을 하고 골퍼장으로 향했다. 어제 갔었던 삿뽀로 카타히로시마 골퍼장에서 오늘까지 플레이를 하기로 하였다. 어제와 다른 점은 18홀은 캐디가 있다. 내심 기대를 하고 골퍼장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캐디언니?...아니..캐디 할머니.....18홀 내내 마음의 부담을 안고 캐디 할머니를 모시고(?) 다녔다. 마침 한국에서 가져간 작은 공예품 한 점을 드리니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랑야도 고자이마시다~~"를 외친다. 18홀을 마치고 9홀을 더쳤다. 이때는 캐디할머니는 없고 우리끼리 카트를 끌고 다녔다. 마음의 부담은 털어졌지만 이번엔 몸이 너무나 고달프기 시작했다. 새삼 고국의 캐디 언니들이 그림자. 앞으로는 고국의 캐디언니들에게 더욱더 잘해 주리라 마음먹고 나머지 9홀을 정신없이 끝냈다.....점수는.....당연히 신경쓰지 않았다.....

이날 저녁은 원제철 사무총장이 일본의 맛있는 회를 사왔다고 현지 가이드에게 좋은 횡집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투어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횡집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일행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삿뽀로의 맛있는 횡집이 16명이 들어갈 방도 없는 아주 작은 포장마차 식이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일행 중 일부는 홀에, 나머지는 작은 골방에 나누어 앉았다. 식당 주방은 두 명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결국 홀에 있는 사모님들은 음식냄새도 맡지 못했단다.... 물론.....나도.....굶었다~~!! 카드도 받지 않는다. 입맛만 다시고 85,000엔을 현찰로 주고 나왔다... 나도 속이 타들어갔는데 원제철 사무총장은 얼마나 속이 탔겠는가! 이런 걸 "돈쓰고 바보됐다!!"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꼭 참는 원 사무총장이 새삼 커 보인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력이 4년차라는 하*투어 현지가이드~~!! 이 기회에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버스도 없이 호텔로 걸어가면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먹는분, 라면집으로 가서 라면을 먹는 분 등등 서로 헤어져서 허기진 끼니를 때웠다. 나도 "미소라맨"을 사켜 먹었다...역시 라면도 우리나라 것이 최고다~~.

셋째날

여유있게 일어나서 어제와는 다른 북해도 골퍼장으로 갔다. 역시 이곳의 자연경관도 정말 멋있다. 차가운 공기에 아름다운 자연..... 신경쓰지말자!! ..어차피 내 나라도 아니다...물론 점수도 신경을 쓰지 않고 18홀을 마쳤다. 오후엔 관광 이란다. 유명한 "노보리벳츠"로 가서 공 목장과 지옥계곡, 그리고 옵션으로 온천을 하기로 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지옥계곡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다. 많은 화산들을 가보았지만 이곳의 지옥계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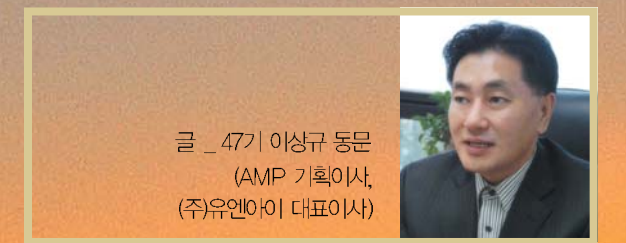
화산 분화구까지 내려가서 구경 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들었다. 산 정상까지는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카메라에 새로운 렌즈를 부착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노보리벳츠에 도착하였다. 가이드아줌마 하는 말 "시간이 늦어서 관광은 포기하고 온천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온천도 예약 해 놓은 곳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두 배가 비쌌다~~!!" 나는 힘없이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허탈한 웃음만 짓고 말았다. 저 멀리서는 공 목장과 지옥계곡으로 가는 케이블카만 우리를 놀리듯 유유히 운행되고 있었다.

마지막날

새벽 4시에 기상하여 5시에 체크아웃까지 끝내고 골퍼장으로 향하였다. 오늘은 가장 좋다는 "니도무 골프클럽", 항상 느꼈지만 정말 좋은 골퍼장이었다. 유래 없이 4일 연속 골퍼를 한 나는 싱글골퍼들께 많은 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날은 왠지 볼이 잘 맞는 것 같았다. 끝날 무렵에 이렇게 볼이 잘 맞으니 어찌 골퍼를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참 골퍼란 묘한 운동인 것 같다. 4일이란 시간이 우리 집행부를 확실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 같다. 골퍼를 통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골퍼회와 우리 연세 AMP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원장배 골퍼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모자람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운동하면서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단 원장배 골퍼대회 뿐 아니라 그 어떤 일도 즐겁게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어느새 내 입가에 혼자만의 미소가 떠오른다.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김영택 골프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골퍼회 집행부 임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글 _ 47기 이상규 동문
(AMP 기획이사,
(주)유엔아이 대표이사)

59기 향이 머무는 설악산의 추억

11월이 되면 59기 동문들은 어김없이 연세 AMP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인다.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59기의 위상을 보여주던 그들은 바쁜 시간임에도 AMP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과시하며 북적이는 59기 가족 축제로 하나가 된다. 지난해에 열렸던 가족 축제도 마찬가지였다. 59기 동문이기에 가능했던 그날의 가족 축제는 동문들의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글 _ 59기 김윤희 동문(AMP 총동문골프회 총무국장, 59기 사무국장, 상림문화(주) 대표이사)



가을 끝자락에서 만난 59기의 낭만

지난 2007년 11월 17일, 18일 양일간 강원도 설악산과 경포대 일원에서 59기 동문 60여 명이 가족 축제를 가졌다. 간단에 가진 가족 축제로 우리는 더욱더 큰 동질감과 하나라는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59기 가족 축제는 버리고 버려던 야외 나들이였다. AMP 수료 후 59기 전체 모임, 골프회, 반별 모임, 총동창회 모임 등 단결력은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59기 동문들인데 유독 야외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워하던 차에 그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집결한 후 미시령을 거쳐 울산바위를 산행하는 코스였고 둘째 날은 대포항을 거쳐 오죽헌과 경포대로 이어지는 동해안 일정이었다.

59기의 열정으로 흔들거리는, 흔들바위

오전 8시, 대절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족 축제에 참가한 59기 동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의 인부를 물으며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피워냈고 가족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은 부풀어 올랐다.

앞선 동문들은 산행이 힘겨운 동문들을 끌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함께 산행에 임했다. 이날만큼은 59기 동문들로 가득 메워진 설악산을 연세 AMP의 산이라 명명해도 좋을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와 산등성이를 타고 낙엽을 쓸어내리는 맞바람 속에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산행하였다. 최종 목표인 흔들바위에 올라간 동문들은 삼삼오오 짝을 맞춰 간간히 휴식을 취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박규상 사장이 준비한 위스키는 지금까지 맛보았던 어떤 술보다 깊고 알싸한 맛이였다. 휴식을 마친 후 신홍사를 끝으로 하산하였다. 초겨울 아쉬운 산행은 하산 도중 발견한 길가의 양미리 작판으로 채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문들은 양미리 구이에 빠져 해가 지는지도 몰랐고, 콧노래와 함께 설악산의 따뜻한 품에 오랫동안 안겨 있었다.

이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내려온 59기 동문들은 모두 저녁 만찬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모였다. 힘에 부치기도 했을법한데 동문 모두가 산행의 즐거움을 나누며 축배를 들었다. 서로 알싸안고 기쁨에 겨워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로 원을 돌려 마지막까지 즐거움의 향연을 느꼈다.

여행을 통한 59기의 행복 재발견

둘째 날, 대포항에서 동해안 관광을 시작한 우리는 차창으로 비치는 바다를 보자 모두 즐거움에 겨워 환호성을 뿜어내었다. 잔잔한 초겨울의 바다를 보자 마음속이 뱅 뚫린 듯한 개운함과 정

갈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오죽헌이었다. 오죽헌에서는 오전 원 권의 울곡 이이와 오만 원 권의 고액화폐가 될 신사임당을 만날 수 있었다. 신사임당은 울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고액권 속의 '민인의 어머니'가 된단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별히 입장료가 무료였다. 신사임당을 닮은 단아한 모습의 사당과 유적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독여지는 것 같았다. 59기 배우자 과정에 참가한 모두가 '신사임당'이란 호칭(?)을 들을만하니 59기 동문들은 더 부러울 것이 없지 않았는가. 이날 여행길은 59기 동문들의 낭만이 가득 찬 꿈길이었다. 기쁨과 행복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연세 AMP 59기 동문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박웃음으로 마음을 전했다. 59기이기에 가능했던 가족축제의 마지막 날은 동문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둠속으로 조금씩 저물어 갔다.

맑은 향이 머무던 11월의 가족 여행은 연세 AMP 59기 동문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함께이므로 행복했던 그날의 기억은 침식했던 동문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떠올릴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날 행사를 주관하고 만행으로 든든하게 행사를 이끌어 주신 59기 이창복 회장 내외분과 59기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여행을 통해 상대를 알고 배려심을 배우다



2007년 11월, 58기 동문 30명은 마쓰야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삼 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58기 모두가 서로 알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람이 만나고 친해지는 데에는 만남의 시간보다 밀도가 중요함을 알게 한 여행이었다.

글 _ 58기 한영일 동문(AMP 홍보이사, 58기 사무국장, 해울림 사장)

지난해 11월 16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으로 하나 둘 공항에 모였다. 그간 격조했던 동문의 모습도 보이고 부부가 함께 온 동문도 계셔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약간의 우발시간이 있었지만 한현숙 회장을 위시한 58기 30명은 아시아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시간 30분쯤 날아가 도착한 마쓰야마는 우리가 늘 다녔던 일본과 사뭇 달랐다. 고조된 정취와 여유러지는 넉넉함 그리고 일본 특유의 인락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호텔의 온천욕은 일상의 찌들어 지친 우리에게 더욱이 훌륭한 선물이었다. 20개가 넘는 온천탕을 들락날락하며 우리는 10년 이상 젊어진 것 같은 상대의 뽀얀 피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첫째 날 우리는 분위기도 고조시킬 겸 만찬을 가졌다. 만찬을 통해 우리는 격식과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가 됐다. 동문들은 그간의 동정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기석 동문이 노래하고 발언할 때, 주호덕 동문이 구호를 열창할 때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우리를 열광하게 한 마쓰야마의 첫날은 그렇게 지났다. 이튿날 우리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약간 쌀쌀했지만 운동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골프장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만끽하도록 꾸며져 있었다. 360야드 미들홀을 원운 시킨 윤석규 골프 회장의 과력에 동문 모두 감탄을 하였다. 회장님과 운동을 같이하면서 재미와 편안함을 준 이 전무께도 감사를 드린다. 즐겁게 운동을 마친 우리는 장소를 옮겨 쇼핑과 관광을 하고난 뒤, 마쓰야마의 온천에 몸을 담그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골프 조와 관광 조로 나뉘어 움직였다. 골프 조는 새로 산 병기를 쓰며 숨 막힌 친선 게임을 했고 관광조는 마쓰야마성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으며 일본의 정취에 흠뻑 빠졌

다. 이후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그간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2박 3일의 여행을 회상하였다.

여행을 통해 상대를 잘 알게 되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혼자만 아닐 거로 생각한다. 일본 투어에 참여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집행부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AMP People

Staff Greeting	82	원제철 사무총장의 신년인사
Alumni Movement 1	84	63기 동정 및 주소록
Alumni Movement 2	86	64기 동정 및 주소록
Alumni Movement 3	88	동문 동정
Notice Board	92	동문 게시판

연세 AMP 초석을 이룰 동문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원제철입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세 AMP 총동창회는 김승제 회장님과 2백여 분의 임원진을 비롯하여 4천여 동문 여러분의 성원으로 커가는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은 제가 지난 1년간 무리 없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들의 산실인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수탁한 동문들의 상호 교류의場이 되고자 그간 동창회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님들의 눈에는 미흡한 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만이 더욱 크게 보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자람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이 되어 저와 집행부를 뛰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올 한해 어떤 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AMP를 만들어 최고의 동창회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친밀하고 활발한 활동, 사랑이 넘치는 인적 교류, 서로 돕는 사업 교류 등 내실 있고 즐거운 동창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산 축제와 골프 대회, 각종 세미나와 친목 회의를 통해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점점 비대해 지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동창회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이사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분담하고 그 역할에 크게 무게를 두어, 각 기 회장과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창회 수익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는 자체 수익 사업으로 그간 진행되어 왔던 명부와 회보, 그리고 향후 발간될 월간 「연세 AMP 동문 광고집」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저나 집행부 몇몇 분이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연세 AMP 동문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뜻을 같이하고 다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문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연세 AMP 총동창회를 명문 동창회로 거듭나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모두 함께 동창회를 위해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연세 AMP 총동창회 사무총장 원 제 철

63기, 배움이라는 진정한 기쁨을 일깨워준 연세 AMP를 사은하다

배움이라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63기 동문들이 앞으로 <연세 AMP 총동창회> 안에서 만남을 돈독히 하여 동문의 발전은 물론 동창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초석을 다짐하였다.

남산 하얏트 호텔로 자리를 옮긴 63기는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과 달콤한 와인, 한껏 분위기를 돋우는 어두운 조명 아래 멋들어진 재즈 연주가의 연주로 분위기를 만끽하였다.

최재진 63기 사무국장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김태현 원장의 답례사가 이어졌고 64기 동문을 대표하여 김태암 63기 회장은 “만남이 옛것과 같은데 이제 헤어짐을 이야기하게 되어 서운하지만 또 다른 출발이 기다리고 있음에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자.”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고, 그동안 학교에 고마웠던 마음을 기념품 전달로 대신하였다.

아울러 연세 AMP 총동창회 입회 및 평생회비 전달식이 있었고 이에 김승제 회장은 평생회원패와 기념

품, 특별 찬조금을 전달하며 “63기가 앞으로는 연세 AMP총동창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 기보다도 활기찬 젊음이 느껴지는 63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로 답례사를 마쳤다.

이날 그간 63기의 여정을 담은 비디오는 63기 동문들을 잠시 추억에 젖게 만들었다.

연세 AMP 63기 사은회는 배움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마음 속에 기리며 아쉬운 막을 내렸다. 63기는 연세 AMP 총동창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동창회의 건승을 다짐하였다.



1. 입학식 2. 모두 함께 찬송 3. 오리엔테이션(별 소개) 4. 수료식(김태현 원장 축사) 5. 화려한 시은회 헌장 6. 평생회원패 전달(김승제 총동창회장과 김태암 63기 회장)



기수	성명	회 사 명	직 위	회사전화	회사팩스	비고
63	강경아	(주)송학	대표이사	031778-2225	031778-2277	
63	고규영	비씨카드(주)	상무	02520-4061	025475-8449	
63	권옥순	(주)대우	대표이사 사장	02556-6293	02542-8055	
63	김무일	현대제철(주)	고문역	022015-0180	02515-5050	
63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	022020-8035	022020-8038	
63	김성철	SK텔레콤(주)	상무	026100-1100	026100-7985	
63	김순길	(주)삼진에너지	대표이사	028412-3005	028412-3007	
63	김연화	(주)비인코리아	대표이사	02561-9071	02561-9074	
63	김영광	(주)국제모피	대표이사	02546-8008	02546-8246	
63	김영주	(주)엔케이바이오	회장	031740-3553	031740-3577	
63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상무	02768-7452	02768-7397	
63	김익배	전 (주)과이브산업	대표이사			
63	김정훈	SJ오일(주)	대표이사	063214-8855	063214-6665	
63	김준현	금융감독원	어전감독실장	028786-8160	028786-8146	
63	김중곤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031970-4290	031970-4292	
63	김철환	동국제강(주)	상무	02817-1202	02817-1403	
63	김태암	(주)씨애크 프라자	대표이사	026244-5790	026244-5798	기 회장
63	김현규	코리아컨버팅(주)	대표이사	031941-1161	031941-7262	
63	김희열	우리은행	부행장	022002-4720	022002-5631	
63	나동선	한국지식관리공사	이사	022103-6100	022103-6029	
63	남양우	(주)리치빌/(주)니은글로벌	대표이사	021443-0593	021443-7707	
63	남한우	(주)한빛나노의료기	대표이사	031421-0081	031421-0052	
63	노재설	흥진정보통신(주)	대표이사	02266-1994	02271-3040	
63	박영규	(주)케이피엔피	대표이사	02521-5636	02521-5637	
63	박용우	(주)네스테크놀	대표이사	02835-7828	02835-7826	
63	배영호	동양증권	상무	028770-5550	028770-5527	
63	변세학	원광조명(주)	대표이사	031777-3899	031777-3890	
63	서정광	학교법인 대한학원	상임이사	022204-1504	022204-1506	
63	신길우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032421-4174	032421-5266	
63	신원근	(주)한화사	대표이사	022013-0500	02222-9876	
63	심영근	(주)첨진상사/(주)아산메디칼	대표이사	022661-3300	022661-5628	
63	양세욱	(주)원양터엠씨/한일금속공업	대표이사	031498-8235	031498-8237	
63	오빈영	현대증권(주)	상무	02768-0046	02783-7311	
63	윤상목	정음건설(주)	대표이사	02592-8838	02592-8834	
63	윤태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경영기획본부장	022003-3162	022003-3266	
63	이규철	엑시캠(주)	사장	02590-6674	02590-6667	
63	이기원	광릉건설(주)/정명씨엔티(주)	대표회장	028487-7811	028487-7815	
63	이상철	신동이건설(주)	홍보실장/이사	02748-8893	02709-7289	
63	이상해	(주)태경월드어패럴	대표이사	02815-1124	02814-3411	
63	이원조	KTF	상무	031788-4800	031788-4304	
63	이인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026360-4705	026360-4707	
63	이종영	동아유조선(주)	대표이사	028276-3636	028276-3645	
63	이창윤	대한생명보험(주)	상무	02520-3800	02520-3883	
63	이태길	시단법인 미술단체 목우회	이사장	02508-6510	02553-7824	
63	이판암	신한신용정보	대표이사	022164-7001	022164-6900	
63	이하창	대한통운국제물류(주)	대표이사	028270-2020	028270-2029	
63	이해동	(주)케이티에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2703-5751	02703-5754	
63	이해석	교보생명보험(주)	상무	02721-2800	02721-3287	
63	임채균	법무법인 지하연	대표변호사	028476-1114	028476-3414	
63	장승훈	화재건설(주)	대표이사	052258-6966~7	052274-3670	
63	장태연	MBC	TV제작본부장	02789-2061	02789-3921	
63	정근배	현대캐피탈	주택금융사업실장	028770-9618	02761-0879	
63	정인용	(주)경민코스메틱	사장	028473-1519	028473-1559	
63	조동일	서초보성한의원	원장	02588-6600	02588-6687	
63	조병호	(주)스펙트/(주)서울검사	대표이사	02552-1112	02553-2229	
63	조용우	SK E&S	전무	022121-3200	022121-3019	
63	주지연	우리 F&I(주)	전무이사	02899-0105	02899-0161	
63	차영훈	한국경제TV	대표이사 부사장	026676-0003	026676-0334	
63	최재진	인성종합건설(주)	사장	032437-7744	032437-7748	사무국장
63	최준호	UBS 증권 서울지점	상무	0287028931	02739-6543	
63	최진용	일진전기(주)	대표이사	02707-9648	02707-9778	
63	하태석	에스제이인터콤	회장	028413-2850	028413-2854	
63	한명윤	(주)피자인	대표이사	02828-3991	02828-7661	
63	한정규	SK(주)	상무	022121-0120	022121-1859	
63	한영길	인성저축은행	대표이사	032860-3603	032860-3600	
63	홍성희	신영증권(주)	상무	022004-9404	02785-1446	
63	황동진	금호레티카(주)/금호오트리스(주)	전무	026303-7217	026303-7301	

진정한 최고 경영자로 거듭난 64기 수료식, 성황리에 열려

연세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64기 수료식이 치러졌다. 돌아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64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과 배움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경영자로 거듭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64기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온 연세 AMP동문들이 축하해주는 훈훈한 장이 되었다.

최고경영자과정 64기가 2007년 12월 20일 상경대 각당헌에서 있었다. 이번 64기 수료식에 김승제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대성 교목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수료식에서 김태현 원장은 64기의 아쉬움과 동문들의 건승을 빌어주었고 더불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를 기억하고 인적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학교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영대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창조적 경영, 국제화, 사회·윤리적 기여」로 정의하며 리더로서 가져야 할 완벽한 가치추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승제 회장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맺었던 교수님, 동창간의 소중한 경험은 연세라는 이

름으로 빛나길 바라며 이제는 동창회 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우의를 다지며 더욱 돈독해지는 64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김태현 원장과 김승제 회장의 축사에 이어 권병국 64기 회장은, “존경받는 경영자로 거듭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64기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배움과 경영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동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64기 수료식에서 김우찬, 신광철 한택희, 홍순영 동문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홍대희 동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김홍동, 김노보, 박종필, 이향구, 김기형 동문이 우수논문상, 그리고 64기를 위해 애쓴 권병국 64기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 입학식(김태현 원장 인사) 2. 입학식(김승제 총동창회장 인사) 3. 오리엔테이션 4. 수료식 5. 수료식 전체 기념촬영
6. 평생 회원패 전달(원제철 사무총장과 권병국 64기 회장)

기수	성명	회사명	직위	회사전화	회사팩스	비고
64	고재희	(주)다빈월드	대표이사	02)780-3116	02)780-2066	
64	구본담	공군	소장	02)827-7652	02)826-4690	
64	권병국	(주)경기도시개발 임평세르빌온천관광호텔	회장	02)3463-5440	02)3463-5439	기 회장
64	김기형	(주)메리츠증권	상무	02)6309-2620	02)6309-4600	
64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회장	02)6900-4422	02)6900-4499	
64	김도식	(주)일상미 디어통신	사장	032)623-0877	032)623-0879	
64	김범용	(주)제니스에스아이	대표이사	02)3664-5938	02)3664-5940	
64	김수남	인천지방경찰청	제2차장검사	032)860-4303	032)860-4307	
64	김영태	(주)SK에너지	전무	02)2121-6116	02)2121-4969	
64	김우찬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02)592-1743	02)592-3878	사무국장
64	김종하	(주)LS전선	상무	02)2189-9085	02)2189-9149	
64	김학경	(주)현대증권	이사	032)657-6582	032)655-1883	
64	김홍동	(주)한대해상화재보험	상무	031)237-5781	031)232-7248	
64	노진이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이사장	031)949-9004	031)949-9123	
64	문석빈	LG-NORTEK	상무	02)2005-4980	02)2005-2560	
64	문영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고문	02)3404-0639	02)3404-0800	
64	민영규	(주)서강이엔	대표이사	02)338-3314	02)338-2887	
64	박원희	(주)우리투자증권 인천지점	상무	032)422-4376	032)421-9916	
64	박재집	(주)한국항공공우주산업	전무	02)2001-3400	02)2001-3011	
64	박종란	(주)인테리어 푸리	대표이사	031)719-0384	031)719-0390	
64	박종필	피시픽 에어 에이전시 그룹	대표	02)317-8801	02)755-9758	
64	방대창	(주)동양메닉스	대표이사	02)2165-1100	02)2165-1148	
64	서정욱	남광섬유	대표	031)879-9900	031)879-5252	
64	사해천	(주)공인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02)763-0771	02-745-2677	
64	석정기	(주)인목	대표이사	032)819-2440	032)819-2449	
64	성길현	이전지과의원	대표원장	02)414-1555	02)412-1115	
64	손광호	(주)한국삼로크	상무이사	02)571-4051	02)571-4053	
64	송기정	(주)교보생명	상무	02)721-3070	02)721-6188	
64	송수진	도서출판 송	대표	02)518-7082	02)546-7082	
64	송윤택	(주)윤성텍스타일	대표이사	02)413-7700	02)413-3887	
64	신광철	(주)나시어티브	회장	02)332-0022	02)338-3640	
64	신관수	한국회화은행	본부장	02)461-7181	02)461-7199	
64	양희식	(주)스페이스링크	대표이사	02)2025-7300	02)2025-7301	
64	윤석만	(주)대한생명보험	상무	02)789-8530	02)789-8730	
64	윤영두	(주)아시아나항공	부사장	02)2669-5100	02)2669-5104	
64	이경희	(주)엑시언	이사	02)421-7950	02)425-1826	
64	이병희	삼성증권	전무	02)2020-8085	02)2020-7168	
64	이상철	(주)삼성생명보험	상무	02)751-8107	02)3709-5251	
64	이시마루 요시오	(주)한국미쓰이물산	본부장	02)3420-0830	02)3420-0897	
64	이영수	(주)우성비엔에프	대표이사	02)382-2942	02)382-2944	
64	이재선	(주)한국남동발전	감사	02)3456-7002	02)3156-7102	
64	이재일	(주)한국씨티은행	부회장	02)2004-1550	02)737-2350	
64	이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	02)709-0654/4795	02)709-6466	
64	이종탁	(주)두인디자인	대표이사	02)529-1834	02)529-1820	
64	이학우	(주)두산 생물자원 BU	상무	032)680-3100	032)683-4585	
64	이향구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세무서장	02)2287-4201	02)379-0552	
64	이효욱	(주)B&F통상	대표이사	02)2077-5601	02)719-9313	
64	정동하	(주)그랑비아 트레이딩	대표이사	02)2026-6222	02)2026-6333	
64	정성호	(주)오닉시스템	대표이사	02)839-5544	02)839-5559	
64	정우석	제이피트로	대표	02)6379-0926	02)6379-0927	
64	조건연	대우건설	상무			
64	조선행	(주)미주산업개발	사장	031)913-1234	031)917-9986	
64	최경실	(주)신흥전업사	대표이사	042)272-2277	042)271-2278	
64	최두준	(주)동남유화	부사장	02)669-3007	02)669-3010	
64	최종호	모빌탑/에스피아이티	대표이사	02)2101-0801	02)2101-0899	
64	최준배	금융감독원	국장	02)3786-7580		
64	추진호	하나은행	부회장	02)2002-2005	02)2002-1521	
64	한상훈	수 성형외과	원장	02)3445-3111	02)516-1333	
64	한택희	(주)일삼	전무이사	02)756-1313	02)752-2452	
64	홍대희	우리은행	부회장	02)2002-3903	02)2002-5604	
64	홍순영	동광제약(주)	전무이사	02)778-2191	02)776-0217	



수상
취임

12기 이정현 동문(수목화가) 감사패 수상

2007. 5. 23 오후 7시 프리마호텔 그랜드볼룸 3층, (주)천일아트 후원, 한국연예스포츠 신문 주최로 열린 제9주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창간기념식 및 시상식에서 12기 이정현 동문(수목화가)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22기 이병남 문화이사(도서출판 생각하는 사람들 회장)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이병남 동문은 2007년 1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 42회 잡지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잡지언론 창달과 한국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6기 이관치 부회장(주)약국신문 대표이사) 보관문화훈장 수훈



약국신문과 창업신문을 발행하는 이관치 동문은 40여년간 전문신문업계 발전과 보건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7년 11월 2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문신문의 날 및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30기 윤영상 이사(한국패션소재협회 부회장) 대통령 표창

한국패션소재협회 윤영상 부회장은 2007년 11월 30일 제44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업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32기 김영홍 동문(주)두산서울부품센터 회장) 서울CC 챔피언 등극

김영홍 동문은 지난해 9월 11일~13일 서울 C.C 시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초대클럽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38기 이두철 명예회장(삼창기업(주)/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울산과기대 초대 법인 이사장 선임

이두철 명예회장이 2007년 11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초대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40기 박경실 동문(주)파고다 아카데미 대표이사) 박사 학위 취득

(주)파고다 아카데미 박경실 대표이사가 2007년 3월 숭실대 평생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7기 원종철 고문(삼원인쇄(주)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2007년 9월 14일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07년도 제19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전에서 원종철 동문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50기 강숙자 동문(前 국회의원) 세계일보 부산광역시 본부장 취임

언론 교육 및 미디어 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지역본부제를 신설, 운용키로 한 세계일보에서 강숙자(50기, 전 국회의원) 동문을 지난해 6월 8일 부산광역시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51기 최종연 동문(연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 국제소아신경외과 회장 선출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08년 1월부터 3년이다. 또한, 2010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소아신경외과회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58기 정총시 부회장(주)오미아그를 동아시아지역 회장) 한국품질경영대상 수상

오미아코리아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국가 경영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가 인정되어 2007년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했다.



59기 신종철 동문(주)위드한비스텝스 대표이사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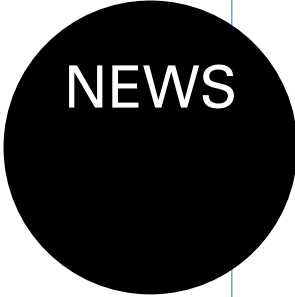
쌍용화재에 재직했던 신종철 동문이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10층에 위치한 (주)위드한비스텝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경 50기 김승제 총동창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50기 김승제 총동창회장(주)이스타코 회장, 국암학원 이사장 '생명의 전화' 이사장 취임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대통령 선거 양천을지구 선거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승제 총동창회장이 지난해 1월 10일 CBS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서서울센터 이사장 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범죄예방과 불우이웃 돕기에 헌신적이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바 있는 김승제 회장은 취임사에서 "복잡 다변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삶은 파편화 되고 개별화 되어가고 있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쳐가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영훈 목사님만큼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춘 한국 생명의전화 국제대표는 축사에서 "새 이사장님과 이사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소중한 우리의 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했고, 임영훈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좋은 이사장님을 맞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쳐 가는 일"에 앞장서는 김승제 회장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출판 행사

43기 김영택 수석부회장 '2007 김영 가족 송년의 밤' 개최

김영 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2007년 12월 19일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1977년 회사 창립 이래 30주년을 맞이한 김영대학편입학원이 법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미래 교육 사업을 주도할 교육 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46기 신영학 문화이사(하상건설(주) 대표이사) 시집 발간

2007. 7. 21 인도에서 개최된 kripya 2007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시상송부문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신영학 동문이 시집 [알몸뚱이(도서출판 천우)]를 발간하였다.

56기 정덕환 동문(에덴복지재단 부회장) WI-Asia 연차총회 개최

정덕환 동문이 위원장으로 있는 에덴복지재단에서 아시아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 재활과 소득 보장을 위한 WI-Asia 연차총회 서울대회를 200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스플라자에서 개최했다.

50기 김승제 총동창회장 부인 홍순희 여사 설치미술전

홍순희 여사의 설치미술전이 2007. 10. 29(월) ~ 11. 10(토) 영등포구 신길동 지엄갤러리 3층에서 열렸다. <이석희 홍순희 설치미술전>이란 이름으로 생활 속 소품과 솔방울을 이용한 테마가 가을 내음과 삶의 아름다운 정취를 물씬 느끼게 했던 이번 전시회는 많은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58기 이철희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소장) 개인전

이철희 동문의 개인전이 마니프(MANF) 서울국제아트페어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이철희 동문이 제시한 조형 언어는 페르소나(Persona)라는 연극무대의 가면이다. "욕망은 인류역사의 긴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동력이다."는 사고를 작품에 담았다.

이전 오픈

31기 공한수 자문위원(BIG DREAM & SUCCESS 대표이사) 국보 갤러리 오픈

지난해 5월 1일 공한수 자문위원이 국보 갤러리를 오픈했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SK HUB B동 402호 BIG DREAM

& SUCCESS 국보 GALLERY HALL에는 각 분야 국보급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상설 전시하였다.

40기 박준서 동문 ((주)젬프라이즈 대표이사) '아르미아' 보석명품점 개업

박준서 동문의 보석수입 전문회사 젬프라이즈가 지난 3월 종로4가 로타리 효성 주얼리시티 2층 J164호에 '아르미아' 브랜드 보석 명품점을 개업하였다.

40기 권기찬 동문((유)오페라갤러리코리아 회장, (주)웨어편인터내셔널 회장)오페라갤러리 개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8-17 네이처포엠빌딩 1층에서 권기찬 동문의 웨어편 패션하우스가 오페라갤러리 개관식을 가졌다.

41기 이덕수 이사(주)틴타임스 대표이사) 창간 7주년

이덕수 이사가 발간하는 틴타임스가 창간 7주년, The kids times 창간 4주년, Phon times 10월31일 1주년을 맞이 하였다.

42기 박광환 동문(우창산업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박광환 동문의 우창산업이 지난 10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6-21번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43기 박상진 조직이사(미모사 양복점 대표이사) 회사 이전

박상진 조직이사의 고급맞춤양복점 미모사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전통적인 양복거리인 소공로로 이전하였다.

50기 박인서 사무부총장(주)로얄DNL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박인서 사무총장 (주)로얄DNL은 지난해 5월 30일 앞으로도 최선의 서비스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주)로얄DNL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 대륭테크노타운 5차 904호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51기 방일석 부회장(올림푸스한국(주) 대표이사) 회사 이전

2006년 제12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전자수출 부문 수상자인 51기 방일석 동문(AMP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올림푸스 한국(주)이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 157-27 경암빌딩 4~5층으로 이전하였다.

54기 이견행 동문((주)다이안옵티컬 상임이사) 웨이브 안경원 도산파크점 오픈

(주)다이안옵티컬 이견행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0번지에 웨이브안경원 제7호 도산파크점을 오픈하였다.

58기 이세형 상임이사 ((주)엘로우캡 대표이사) 이천종합물류센터 오픈

(주)엘로우캡은 물류기업으로서 전국 2,5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쪽에 2만여 평의 물류터미널을 신축하여 지난해 7월 8일 400여 명의 사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61기 이정희 부회장 ((주)한열공업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

지난 11월 10일 61기 이정희 부회장의 (주)한열공업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628-11번지에 새로운 일터를 완공했다.

사고

48기 김흥진 동문 의전이사(주)흥진가구 대표이사) 공장 전소

2007년 12월 16일 김흥진 의전이사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3천여 평의 공장이 전소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 큰 화재로 실의에 빠진 김흥진 동문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Notice Board

결 / 혼 / 을 / 축 / 하 / 합 / 니 / 다

11기 이동현 기 회장(모건알루미늄(주) 대표이사)

장남 석용 군 결혼

일시 : 2007. 5. 19(토) 낮 1시
장소 :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22기 윤여덕 부회장(윤덕기업(주) 대표이사)

차남 광식 군 결혼

일시 : 2007. 5. 13(일) 오후 3시
장소 :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2층 그랜드볼룸

22기 이영화 부회장(동민상사 대표)

장녀 동은 양 결혼

일시 : 2007. 5. 26(토) 오후 2시
장소 : 영락교회 선교관

22기 감경철 동문(CTS기독교TV 사장)

차남 덕규 군 결혼

일시 : 2007. 6. 16(토) 오후 2시
장소 : 광림교회 본당

22기 김영운 부회장(주)인강출판인쇄 대표이사)

아들 일경 군 결혼

일시 : 2007. 10. 21(일) 오후 5시
장소 :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리젠시룸

36기 오인교 동문(주)서건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

대표) 차녀 주미 양 결혼

일시 : 2007. 3. 17(토) 오후 1시
장소 :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

38기 박삼복 상임부회장 (에어팩스(주) 대표이사)

장녀 고운 양 결혼

일시 : 2007. 5. 11(금) 오후 6시
장소 : 소공동 조선포텔 1층 그랜드볼룸

38기 국방현 부회장(유)초원건설 대표이사)

차녀 나행 양 결혼

일시 : 2007. 7. 14(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전남 목포 호텔현대

38기 이두철 명예회장(삼창기업(주) 회장 /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장녀 수진 양 결혼

일시 : 2007. 9. 7(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JW 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39기 이병극 자문위원(주)캐리마 대표이사)

장녀 수정 양 결혼

일시 : 2007. 4. 14(토) 오후 1시
장소 :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

39기 김동주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차남 태완 군 결혼

일시 : 2007. 10. 13(토) 오후 1시
장소 : 센트럴시티웨딩홀 5층 크리스탈홀

44기 이유일 동문(아이스비스(주) 사장)

자제 재신 양 결혼

일시 : 2007. 3. 9 (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44기 최도석 부회장(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장남 장원 군 결혼

일시 : 2008. 1. 23(수) 오후 6시
장소 :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

47기 주정연 동문(정은사 대표)

장남 용범 군 결혼

일시 : 2007. 4. 21(토) 오후 1시
장소 : 오륜비전센터2층 그레이스홀

47기 이현구 자문위원(주)까사미아 대표이사)

장남 형우 군 결혼

일시 : 2007. 10. 13(토) 오후 6시
장소 :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

48기 이경하 상임부회장(대원유통물산(주) 대표이사)

차녀 정원 양 결혼

일시 : 2007. 8. 26(일) 오후 3시
장소 :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

50기 김선하 동문(주)삼성C.E.L 대표이사)

차녀 지원 양 결혼

일시 : 2007. 4. 11(수) 오후 6시
장소 : 강남구 삼성동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

51기 김영훈 동문(세무법인 드림 고문)

장녀 진희 양 결혼

일시 : 2007. 9. 8(토) 오후 1시
장소 : 웨딩코리아 5층 그랜드홀

52기 최광룡 부회장(주)보광기획 대표이사)

아들 문규 군 결혼

일시 : 2007. 11. 10(토) 오후 1시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

52기 이규택 동문(한나라당 위원장)

딸 현정 양 결혼

일시 : 2007. 11. 24(토) 오후 1시
장소 : 공항터미널 예식장 3층

53기 유명준 이사(송림건설(주) 대표이사)

장녀 은정 양 결혼

일시 : 2007. 12. 8(토) 오후 2시
장소 : 남산 자유센터웨딩홀 평화홀

57기 김제수 상임이사(주)한국후지제록스 상무이사)

장녀 기현 양 결혼

일시 : 2007. 5. 19(토) 낮 1시
장소 : 천주교 방배동 성당

59기 고문중 부회장(59기 수석부회장,
(주)평화유통 대표이사) 장남 평화 군 결혼

일시 : 2008. 1. 12(토) 낮 12시
장소 : 일산 킨텍스 3층 그랜드 볼룸 조선호텔 웨딩홀

삼 / 가 / 조 / 의 / 를 / 표 / 합 / 니 / 다

2기 이인식 동문(회장) 별세

26기 이관치 부회장(주)약국신문 대표이사) 모친 별세

발인일 : 2007. 7. 17(화)
빈 소 :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 3호실

9기 백성덕 동문(회장) 별세

31기 정우철 고문(주)일삼 대표이사) 모친 별세

별세일 : 2007. 6. 21(목)
빈 소 : 강남 삼성의료원 영안실 15호실

16기 이수련 동문(동아생명 前 상무이사) 별세

23기 김태인 동문(삼부해운(주) 前 회장) 별세

34기 김효영 동문(두리기공(주)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12. 30(일)
빈 소 : 경남 진주 제일병원

30기 박길훈 동문(회장) 별세

35기 이광석 부회장(CK-TV 회장) 별세

별세일 : 2007. 3. 19(월)
빈 소 : 분당 차병원 영안실 1호실

37기 김죽영 동문(신한백재(주)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6. 9(토)
빈 소 : 목동 이대병원

38기 이두철 명예회장(삼창기업(주) 회장 /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빙모 별세

별세일 : 2007. 9. 14(금)
빈 소 :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38기 채봉석 상임부회장(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빙부 별세

별세일 : 2007. 9. 15(토)
빈 소 : 이주대학교 영안실

38기 채봉석 상임부회장(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모친상

별세일 : 2008. 1. 12(토)
빈 소 : 위생병원 추모관 201호

40기 장희천 동문(전 국방부 군비검증단 단장) 부친 별세

별세일 : 2008. 1. 27(일)
빈 소 : 광주 무등 장례식장 203호

41기 조시영 고문(대창공업(주) 회장/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장인 별세

별세일 : 2007. 3. 13(화)
빈 소 : 전주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천실(2층)

44기 조태성 이사(일신건영(주) 대표이사) 모친 별세

별세일 : 2007. 8. 19(일)
빈 소 : 안암동 고려대학교병원 영안실 303호

45기 정현대 동문(주)대성하이테크전자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9. 2(일)
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46기 이재순 환경이사(주)피엔엠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11. 3(토)
빈 소 : 경북 상주 함장 중앙 장례식장

47기 이재원 부회장(주)신진세이프테크 사장) 장모 별세

별세일 : 2007. 3. 26(월)
빈 소 : 한양대학교서울병원

47기 임후연 부회장(오성전기조명백화점 대표) 빙모 별세

별세일 : 2007. 12. 4(화)
빈 소 : 이대 목동 병원 영안실 13호실

48기 김흥진 의전이사(주)흥진가구 대표이사) 모친 별세

별세일 : 2007. 6. 26(화)
빈 소 : 서초동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52기 최광룡 부회장(보광기회 대표이사) 빙모 별세

별세일 : 2007. 5. 6(일)
빈 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부여장례식장 특실

52기 임봉희 동문(정한정보통신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6. 24(일)
빈 소 : 목동 이대병원 12호실

55기 김형수 동문(주)삼다코리아 대표이사) 장인 별세

별세일 : 2007. 5. 22(화)
빈 소 : 현대 아산 병원 30호실

55기 권종덕 상임이사(지우전자(주)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9. 13(목)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3호실

56기 한균일 상조이사(세성종합건설(주) 회장) 장인 별세

별세일 : 2007. 8. 13(월)
빈 소 : 서울대입구역 근화병원 201호

58기 강민구 동문(찬누리종합건설 대표이사) 장인 별세

별세일 : 2007. 4. 11(수)
빈 소 : 역촌동 서부 시립병원 영안실 1호실

61기 이상경 체육이사(주)해성물류 대표이사) 장모 별세

별세일 : 2007. 5. 14(월)
빈 소 : 흑석동 중앙대병원 영안실 6호실

62기 주도식 동문(주)프리에스 대표이사) 부친 별세

별세일 : 2007. 10. 30(화)
빈 소 :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 특2호

64기 이호욱 동문(주)B&F통상 대표이사) 빙부 별세

별세일 : 2008. 1. 27(일)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회 / 사 / 주 / 소 / 번 / 경 / 안 / 내

4기	이내흔 동문	현대통신(주) 회장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73-12 현대통신빌딩	02)3432-0547
9기	이수현 부회장	(주)제동선박 회장 /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 부산데파트 507호	051)246-9880
15기	김석준 동문	(주)티보테크 상임감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5-11	02)2059-2603
16기	김윤배 윤리위원장	선무건설(주) 회장 / 서울시 송파구 선릉동 11-9 잠실한신코아오피스텔 903호	02)2202-4561
21기	홍상기 동문	금영상사(주) 회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양8동 548-4 도정오피스텔 1203호	031)448-6082
22기	이재군 동문	SYG산업(주) 회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901호	02)3487-4541
22기	장대준 이사	법무법인 새얼 부회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1호	02)3478-8383
25기	김태욱 상임부회장	시호비전 회장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회관빌딩 801호	02)3446-5001
26기	이종기 동문	이스트웨스트텍 대표 / 경기도 가평읍 청평면 호명리 31-2	031)897-8421
26기	최병남 동문	(사)한국상록회 총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훈빌딩 5층	02)565-3623
28기	서운석 동문	(주)선파 대표이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42층 2203호	02)599-1311
29기	이필상 동문	안산학연구소 사장 / 경기도 안산시 다능구 초지동 743 신명트윈빌딩 B동 201호	031)483-0006
31기	김오현 동문	(주)윌텍 대표이사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9-3번 에스디타워빌딩 5층	02)333-4187
35기	안병인 이사	신원정보통신(주) 대표이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6-7 38블럭 8롯데	032)821-5735
35기	이성욱 부회장	대일부동산컨설팅(주) 회장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32-11 등우빌딩 2층	02)447-7736
35기	최병철 동문	(주)환길프로덕션 대표이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선계빌딩 303호	02)571-5131
38기	정준명 동문	LEE 인터내셔널 고문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극동빌딩 14층	02)2262-6039
39기	김상열 동문	(주)LK 회장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8-2 LK사옥	02)2671-1752
42기	박광환 동문	우창산업 대표이사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6-21 2층	02)302-1791
42기	전상표 상임고문	한진그룹 회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 한진에버빌 8층	031)600-1032
43기	김순무 동문	(주)한국아쿠르트 부회장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0 우덕빌딩	02)3449-6300
43기	박상진 조직이사	미모시양복 대표 / 서울시 중구 소공동 8 소공빌딩 1층	02)757-3466
43기	안승길 동문	조영SF(주) 대표이사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3-3 남동공단 51-4루트	02)816-2000
44기	황원철 동문	(주)포스텍 고문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대림한솔타운 102동 1304호	054)223-2522
47기	정용태 동문	(주)삼주코텍 대표이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 오토갤러리 은관 608호 SAG건물	02)2059-5055
48기	기형도 이사	(주)메이미디어테크 대표이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5-2 타호비즈니스센터	02)522-7008
50기	박봉수 상임이사	외환은행 동수원지점 부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2 3층	031)267-0316
51기	김영호 동문	세무법인 드림 고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5 청원빌딩 3층	02)564-5900
51기	박성훈 체육이사	(주)더글프 대표이사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116 SK 리젠빌B/D 1층	02)469-9606
51기	방일석 부회장	올림푸스한국(주) 사장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암빌딩 4층	02)6255-3201
51기	최진수 동문	(주)아이스타TV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8-22 아이스타TV	02)5430-100
52기	이석구 부회장	(주)스타박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0	02)3015-1101
52기	전영재 동문	대신제약공업(주) 회장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35-1	02)418-3683
52기	조경수 기획이사	(주)OFT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12 나현빌딩 5층	02)543-1015
52기	최종태 동문	(주)링크제일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01-43 에드리빌딩 5층	02)3452-2393
53기	김기영 동문	오맥스(주) 회장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0-5 명빌딩 5층	02)3141-6060
53기	김학연 동문	에스캐다코스메틱(주)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	02)3450-0109
53기	이동호 동문	Lee and Ahn 투자연구소 대표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5-4 현대 아이스페이스빌딩 904호	02)414-9553
53기	장낙풍 동문	센프로스(주) 대표이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83-6 상원빌딩 4층	02)2668-9105
55기	박인규 부회장	(주)코리아홀쇼핑 대표이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롯데뉴티케슬 13층	02)870-7751
55기	신전섭 이사	(주)선영플래닝 부회장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1 역삼빌딩 2층	02)564-5547

56기	고석환 동문	(주)한탑산업개발 대표이사 / 서울시 도곡동 411-16 BM빌딩 5층	02)3442-0901
56기	유영현 동문	(주)리파즈 한라시멘트 부사장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지비빌빌딩 4층	
56기	이재범 동문	대지철강(주) 대표이사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83-16 신한빌딩 3층	02)896-6531
58기	김희태 동문	우리은행 부행장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리은행본점 11층	02)2002-4690
58기	윤석규 동문	아이케이스틸(주) 대표이사 / 경기도 일산구 마두동 990-3	031)905-9400
58기	정영훈 동문	케이투코리아(주) 대표이사 / 서울시 상동구 성수2가 278-30	02)3408-9735
59기	설동윤 동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문이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02)3786-1100
59기	윤영호 동문	두산메카텍 전문 /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 18층	02)3398-1710
60기	고창석 체육이사	(주)세보엠이씨 전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7-52	031)213-5355
60기	김병태 부회장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부사장 / 서울시 중구 초동 21-9 4층	02)2262-3004
60기	박영덕 동문	(주)엑스크레프트 대표 / 부산시 강서구 자사동 1276 부산테크노파크포스트 B동 109호	051)974-9661
61기	김남일 동문	(주)대신종합건설 대표이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 성남상공회의소 5층	031)704-1122
61기	이정희 부회장	(주)한얼공업 대표이사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628-11	031)358-0111
61기	주대준 동문	청와대 경호실 차장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02)770-5600
61기	주성철 동문	한국동서발전(주) 기술본부장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02)3456-8304
62기	신춘균 동문	비케이스틸(주) 대표이사 / 경기도 인천시 단원구 성곡동625-6 반월공단 609블럭 20-1롯데	031)499-0077
62기	이승재 동문	(주)승화이앤씨 대표이사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1단지 승화빌딩 4층	02)2262-6300
62기	정희원 동문	(주)네이처스팜 대표이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춘의테크노파크 201동 703호	032)623-0217
62기	김미영 동문	W-insights 대표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4-25 2층	02)557-0783
63기	강경아 동문	(주)송학 대표이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8 동남빌딩 5층	031)778-2225
63기	김철환 동문	동국제강(주) 상무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 유니온스틸빌딩 14층 동국제강 원료팀	02)317-1202
63기	박영규 동문	(주)에이파네피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테리타워 14층	02)521-5536
63기	윤상목 동문	정윤건설(주) 대표이사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3-20 장방빌딩 3층 305호	02)592-8838
63기	심영근 동문	(주)협진상사·(주)아산메디칼 대표이사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9-1 백상빌딩 2층	02)2661-3300

자 / 택 / 주 / 소 / 번 / 경 / 안 / 내

12기	조식원 동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739 연희대우아파트 106동 1404호	02)324-4956
13기	조길용 자문위원	광명실업·광명농원 대표이사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79-412호	02)823-7877
16기	지재윤 동문	경기 인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9-5	031)453-9814
31기	김이식 이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416-1 명훈빌라트 101호	031)272-1463
31기	이에스대(이항연) 동문	Space Dreampia Co.Ltd 사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11 대우아이빌 316호	
32기	최재진 동문	(주)서진통상 전 대표이사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48 상진자오밸리 1동 601호	02)2651-4809
33기	윤대림 동문	(주)가원주택 회장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8-5 세비앙 102동 301호	02)2052-3434
44기	조희재 부회장	LG전자부품(주) 전 사장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31 LG빌리지 609동 101호	031)264-2375
47기	원제철 사무총장	자이언트종합물류(주) 대표이사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64-4	031)901-3711
54기	김병국 동문	(주)타임투자개발 대표이사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703-32 선명아파트 101동 402호	02)335-0819



연세 AMP 동문 광고집이 귀사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사업홍보는 물론,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까지.
4,000여 명이 넘는 연세 AMP 동문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세 AMP 동문 광고집으로 귀사의 발전에 힘을 실어보세요.

A-Type

직업된 광고를 받을 경우



기본광고비

B-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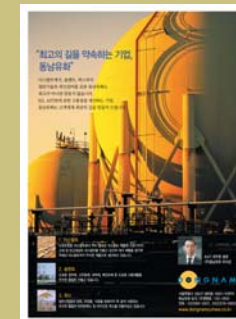
정해진 틀에 따른 광고



기본광고비 + 200,000원

C-Type

신규 광고디자인



별도협약

문의연락처

AMP사무국
02)702-7554

* 이 내용은 가안이므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길을 약속하는 기업, 동남유화”

아스팔트에서, 솔벤트, 왁스까지
첨단기술과 최신설비를 갖춘 동남유화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KS, ASTM에 준한 고품질을 생산하는 기업,
동남유화는 고객에게 최상의 길을 만들어 드립니다.



1.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서 부터 블로운 아스팔트 제품에 이르기까지
고체 및 반고체상의 아스팔트를 만들고 있으며 여러 제품을 첨가한
액체상 아스팔트까지 우수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 솔벤트

도로용 접착제 고무용제, 세척제 페인트제 등 도로용 사용제품을
우수한 품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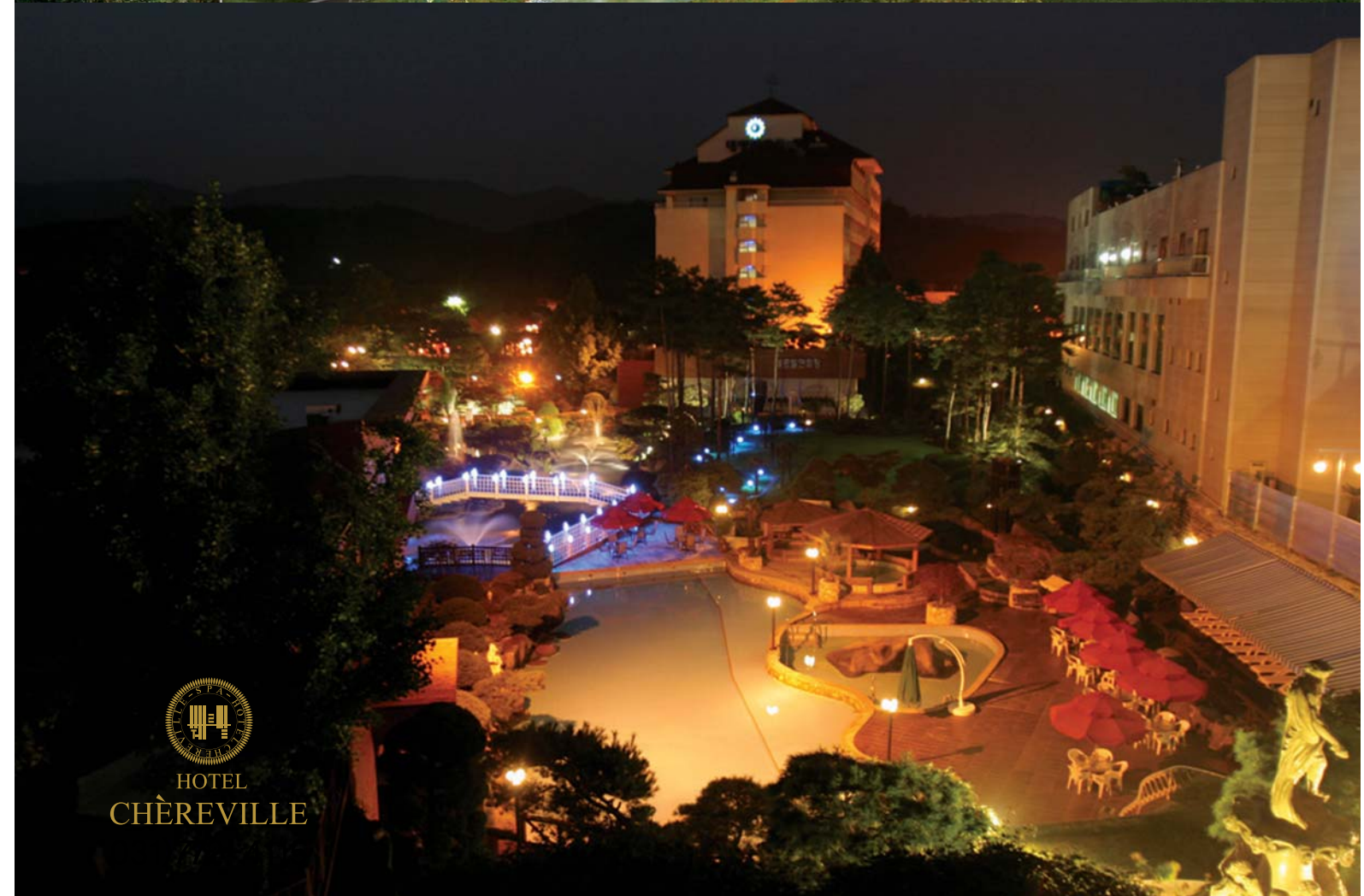
일반산업용과 양초, 화장품, 식품용 등까지 폭 넓게 사용되는
우수한 품질의 파라핀왁스 및 마이크로 왁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4기 최두준 동문
(주)동남유화 부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1-10번지
동남유화 B/D (우편번호: 135-280)
전화: 02)569-3001, 052)270-0600
www.dongnamyuhwa.co.kr



HOTEL
CHÈREVILLE